



선진 공여기관의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PSD)지원 전략 연구

2017. 9

선진 공여기관의 개도국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전략 연구

2017. 9.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책임자

고요한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연구원 (현)
- 콜롬비아 대학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국제학 석사

주요 연구 실적

- ▷ 공저 2016. “사업기획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례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6.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창업프로그램 성공사례 및 KOICA의 시사점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6. “민간부문 개발협력의 추가성 논의 및 측정방법”. 개발과 이슈 제27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박수영 · 고요한. 2014. “개발공헌지수(CDI)의 의의와 한계 및 우리원조에 대한 시사점 고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박수영 · 고요한. 2012. “개발공헌지수(CDI)와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를 통해 본 우리 원조개선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0. “KOICA 무상 ODA 잠정통계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1-2: 196-207.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연구원

김효신

주요 경력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연구보조원 (현)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국제관계전공) 석사

주요 연구 실적

- ▷ Choi, Jina, Hyoshin Kim, and Jinhwan Oh. 2017.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ole Of China: Empirical Approach." GLOBAL BUSINESS FINANCE REVIEW 22(2):8-15.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최근 민간부문은 ODA 외에 개발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로 개발협력분야에서 새로운 개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부문은 단지 재원 동원의 기능을 넘어 개도국 내 빈곤계층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이하 PSD)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실제로 PSD는 빈곤층이 소득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며, 정부에게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어 궁극적으로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전체 PSD 사업의 방향성 및 전략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PSD 개념과 접근유형 및 목적에 대해 조사하고, GIZ, JICA, USAID를 비롯한 타 공여기관의 PSD 전략 및 접근유형을 분석하여 KOICA의 PSD 접근유형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2016)에 따르면 PSD는 ‘개도국 지역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역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 시장 기능, 기업자원을 다루는 개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PSD에 대한 정의는 공여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개념으로는 PSD를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기존보다 잘하기 위한 방법(a means of doing things better)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 된다.

OECD는 PSD 지원영역을 분석하는 틀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한 가지는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 중 어느 부문을 지원하는지 구분하여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개입하는 준위에 따라 상류(upstream), 중간(midstream), 하류(downstream)로 나눠보는 것이다. 한편, 기업개발을 위한 공여위원회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이하 DCED)는 PSD 접근유형을 민간섹터참여,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 친화적 시장 개발, 소기업개발, 산업정책 5가지로 구분하며, PSD의 주요 목적을 고용창출, 여성 경제권 강화, 청년 고용, 녹색성장, 혁신정책으로 정리하고 있다.

독일의 GIZ는 개도국 민간부문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낮은 경쟁력 및 다각화 결여라고 보면서 적절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환경 조성,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수립 및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3가지 핵심 이행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GIZ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소기업개발, 민간섹터참여의 접근유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투자환경(44%), 인프라

(11%), 생산역량(45%)에 각각 투입한바,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GIZ의 PSD 사업들은 대다수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소·중기업을 지원하는 소기업개발 접근유형을 적극적으로 취하며 자국의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개도국과 자국의 기업들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PSD 전략을 추구하며 인프라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원영역으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무역과 투자 장려, 기업의 경쟁력 강화, 개도국 지역 경제 및 산업 촉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개선, 소기업개발 및 산업정책의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ODA 명목 금액 기준, JICA는 인프라에 77%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이는 민간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JICA의 기초를 잘 알 수 있는 바이다. JICA의 대다수 사업은 일본 경제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기술협력 성격을 가진 인적자원 역량 개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따로 PSD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않지만 12개 지원 분야 중 경제성장과 무역 분야의 지원 방법으로 PSD를 활용하고 있다.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의 접근유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USAID는 2015년 명목 기준, 투자환경(49%), 인프라(5%), 생산역량(47%)에 각각 투입한바,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에 주로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대표적인 PSD 사례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총 7백만 달러를 지원한 세르비아 민간부문개발 프로젝트를 들 수 있으며, 세르비아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12개시의 민간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시도 PSD 전략을 따로 수립하여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5년간의 KOICA 사업을 분석 해보면 PSD를 위해 민간섹터참여,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및 소기업개발의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2015년 ODA 명목 기준, KOICA 차원에서 투자환경(30%), 인프라(19%), 생산역량(51%)에 각각 투입하고 있어 생산역량 개선을 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역량 중에서도 직업 훈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인적 자원 역량 개선이 민간부문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 사례로는 네팔의 부트왈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으로, 교사의 능력 향상 및 유지를 통해 네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입학생의 50% 이상을 취약계층 출신에 배정하여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OICA의 PSD 지원 목적을 중장기 경영목표 2017-2021 중 하나인 ‘개도국의 자립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고, PSD 지원 대상 타겟 지역 및 국가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 중 국가개발계획에 PSD 관련 개발과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최빈국의 경우에는 생산역량 강화와 같은 단기에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하류에 개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중소득국에는 투자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 사업과 같은 상류와 중간에 개입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DCED의 PSD 접근유형 중 최빈국의 경우에는 민간섹터참여 및 소기업개발을,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산업정책 및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결과중심적인 PSD 지원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삼고 사업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 관리 이행 계획표를 세울 것을 제시하며 결과 체인의 명확화, 변화를 측정할 지표 확정, 지표 변화 측정, 사업 활동에 원인이 된 변화 측정, 시스템 또는 시장 내 확대된 변화 관측, 프로그램 비용 추정, 결과 보고, 결과 측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의 단계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영문요약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increasingly placing a much greater emphasis on the role that the private sector plays in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addition to its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field, yet, with the prevailing assumption that the private sector can be utilized to generate income and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would attract more attention and be expanded in the near future. In fact, it is believed that PSD fundamentally contributes to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y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ose in poverty are able to earn more money and to secure decent jobs while governments can fully enjoy expanded domestic tax revenues. Despite such anticipated positive impacts, however, there has been no enough academic discourse on strategies and directions that Korea can seek, bringing rooms for the nation to improve in this a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 definition of PSD, approaches and objectives. By analyzing their PSD strategies and approaches of other donor agencies, it also intends to provide the possible implications for KOICA and further contributes to adopting its directions and strategies in the scope of PSD.

PSD, according to the OECD (2016), is defined ‘as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addresses policies and institutions, market functioning and enterprise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investment climate and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local private sector—particularl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in developing countries.’ Even though there is no clear concept definition of PSD on which donor agencies have formed a consensus, the common understanding on the scope of PSD is that they all see it as ‘a means of doing things better’ rather than merely as a goal.

When it comes to capturing supports to PSD, OECD applies two analytical frameworks: Investment Climate, Physical Infrastructure, Productive Capacity; and Policies and Institutions (upstream), Market Functioning (midstream) and

Enterprise Resources (downstream) which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xtent of intervention. Meanwhile,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DCED) presents 5 types of approaches to PSD including ‘Business Environment Reform, Private Sector Engagement,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M4P),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y’ while the objectives of PSD are identified as ‘Employment Creati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Youth Employment, Green Growth, and Innovation Policy.’

Among donor agencies, GIZ from Germany sees a low level of productivity, a poor degree of competitiveness and a lack of diversification as fundamental obstacles facing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It has adopted its three core strategies for PSD: creating appropriate polit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putting in place competitive and sustainable economic structure; and building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for sustainable investment. GIZ uses Business Environment Reform, M4P,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nd private sector engagement as its key approaches to PSD. As of 2015, GIZ, among the three PSD areas, allocated comparatively large proportions of 45% and 44% to productive capacity and investment climate respectively, with the marginal share of 11% to physical infrastructure, implying its special stress on the productive capacity and investment climate. Most of the PSD support projects carried out by GIZ adapt the approach of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ort the firms in a long-term period indicating that Germany tactically takes competitive advantage of its strong manufacturing industry.

Japan pursues PSD strategy which can benefit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ts domestic companies and has laid a considerable focus on physical infrastructure. As for the PSD areas, it has made a single effort to introduce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promoting economies and industries, while taking the approaches of Business Environment Reform,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y. Furthermore, as large as 77 percent of ODA spending on PSD areas in 2015 in nominal terms was spent for physical infrastructure. It shows that JICA’s stands that physical infrastructure is of the greatest significance to facilitate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What is noticeable is that most of JICA’s PSD practices

are concentrated on Asian countrie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with Japanese economic benefits. They are, in most cases, capacity building enhancement projects for human resource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Meanwhile, although the US has not clarified its national strategy for PSD it has pursued PSD approaches to provide supports to the areas of economic growth and trade. Underscoring the approach of M4P, USAID, with respect to the 2015 ODA spending on PSD areas in nominal terms, distributed its supports to investment climate (49%), physical infrastructure (5%) and productive capacity (47%) respectively. It implies US's high priorities of investment climate and productive capacity. Among successful PSD cases of USAID are the Private Sector Development Project in Serbia with the budget of 7 million USD for a 4-year term, which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private firms in the 12 economically vulnerable cities of the nation.

Korea does not have specific strategies for PSD. However, the in-depth analysis over the recent 5-year projects implemented by KOICA demonstrated that the KOICA has been used the approaches of Private Sector Engagement, M4P and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for its PSD support projects. In KOICA, as of 2015, the share of ODA spent on the component of productive capacity was 51%, followed by investment climate (30%) and physical infrastructure (19%), meaning its great stress on productive capacity. In particular, among the PSD projects relating to productive capacity, KOICA has mostly highlighted the establishment of TVET schools. It shows KOICA's perspective that it considers capacity building enhancement for human resources the most underlying factor in intensifying the private sector of developing nations. One of the fruitful PSD cases conducted by KOICA is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Butwal. The project brought a result of fostering high-quality workers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teachers. The project contributed to poverty reduction by receiving more than 50 percent of entering students to the school from vulnerable groups.

Based on the analysis and findings,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 'Improve Developing Countries' Ability to be Self-Reliant,' in KOICA's Mid-to Long-term Management Strategy, this paper highly suggests that the targeting countries

of PSD projects should be limited to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of KOICA in Asia and Africa, of which have already set the PSD-related agenda as one of their national development plans. When it comes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downstream interventions such as productive capacity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achievements can be seen in a relatively short-term period. For the middle-income countries, upstream and midstream interventions need to be conducted. Also, in terms of the approaches to PSD, Private Sector Engagement and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re recommended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hile Business Environment Reform, Industrial Policy, and M4P should be proposed for the middle-income countries. When implementing PSD support projects it must be result-based and be in pursuit of inclusiveness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last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tting a results chain implementing plan for results measurement in a systematic manner.

목 차

국문요약	i
영문요약	iv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
II. 민간부문개발(PSD)의 개념과 동향, 접근유형, 목적	4
1. PSD란	4
2. PSD 지원 동향	6
3. 접근유형 5가지	12
4. PSD의 목적	15
III. 공여기관의 PSD 접근유형 및 사례	19
1. 독일/GIZ	19
2. 일본/JICA	30
3. 미국/USAID	36
4. 한국/KOICA	40
5. 소결	44
IV. 결론 및 시사점	46
1. KOICA PSD 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46

2. 정책 제언	49
참고문헌	55
[부록 1] 공여국별 PSD 전략	58
[부록 2] DCED 표준 점수표	71

표 목차

〈표 1〉 공여기관별 PSD 정의	5
〈표 2〉 DAC 공여국의 PSD 지원 실적 (2006–2015)	7
〈표 3〉 PSD 지원영역별 원조목적코드 구분표	11
〈표 4〉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및 일자리 창출	15
〈표 5〉 공여국 전략 내 중점 지원 PSD 영역	19
〈표 6〉 독일 GIZ PSD 지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23
〈표 7〉 GIZ의 PSD 지원 사업 사례	24
〈표 8〉 일본 JICA PSD 지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34
〈표 9〉 JICA PSD 관련 사업 리스트	35
〈표 10〉 미국 USAID PSD 지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39
〈표 11〉 한국 KOICA PSD 지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43
〈표 12〉 KOICA 분야별 전략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46
〈표 13〉 중점협력국 국가개발계획 내 PSD 관련 개발과제	48
〈표 14〉 지표 Pool 예시	51

그림 목차

〈그림 1〉 PSD의 혜택	6
〈그림 2〉 DAC 공여국의 PSD 지원 실적 (2006–2015)	7
〈그림 3〉 PSD 영역	8
〈그림 4〉 2013년 DAC 회원국의 ODF 상위 7개국 (단위: 10억 달러)	9
〈그림 5〉 2013년 DAC 회원국의 PSD 관련 분야에 배분된 ODF	10
〈그림 6〉 공여기관의 PSD 지원영역	10
〈그림 7〉 비즈니스 환경의 정의	13
〈그림 8〉 민간섹터와의 관계 기준 vs. 최근 비교	14
〈그림 9〉 빈곤 친화적 시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 체계	14
〈그림 10〉 독일 기관별 PSD 지원 ODA 금액 2011–2015	22
〈그림 11〉 독일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22
〈그림 12〉 독일 GIZ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23
〈그림 13〉 독일의 PSD 결과들	27
〈그림 14〉 JICA의 PSD 전략	30
〈그림 15〉 일본 기관별 PSD 지원 ODA 금액 2011–2015	32
〈그림 16〉 일본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33
〈그림 17〉 JICA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33
〈그림 18〉 미국 기관별 PSD 지원 ODA 금액 2011–2015	37
〈그림 19〉 미국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38
〈그림 20〉 USAID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38
〈그림 21〉 한국 기관별 PSD 지원 ODA 금액 2011–2015	41
〈그림 22〉 한국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42
〈그림 23〉 KOICA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42
〈그림 24〉 결과 관리 사이클	50

약어표

약어	정식명칭	한글명칭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
As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BMZ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CIDA	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개발처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CED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기업개발을 위한 공여위원회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개발부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국제협력공사
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 개발은행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개발은행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저중소득국
M4P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빈곤친화적시장개발
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초소·소·중기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D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공적개발재원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파트너십
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민간부문개발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스위스 개발협력청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기술교육훈련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고중소득국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 무역 개발 회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
WFG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그룹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민간부문이 개발협력에서 새로운 개발 주체로써 부상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ODA 외의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개도국 내 빈곤계층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도구로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이하 PSD)이 관심을 받고 있다. 원조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개도국이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빈곤계층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국가 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PSD는 빈곤층이 소득을 개선하고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정부에게는 세수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빈곤퇴치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

PSD가 처음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980년대부터 워싱턴 컨센서스와 함께 시장의 역할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공여기관들이 1990년대부터 개도국의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여러 개도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불평등과 빈곤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및 불확실성 해소, 시장의 조정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여기관은 민간부문개발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개도국의 제도를 개선하는 거시적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공정 경쟁 메커니즘 구축이 반드시 빈곤퇴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공여기관들은 사회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생계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미시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SDGs 목표 8, 9, 12번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 공여기관들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바탕으로 한 빈곤퇴치를 위해 개도국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KOICA는 정부 간의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지원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PSD 지원 전략, 동향, 접근유형 등을 살펴보고 향후 KOICA의 PSD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모두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배경 및 범위를 설명한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공여기관별로 PSD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PSD의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PSD의 5가지 접근유형인 민간섹터참여,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 친화적 시장 개발, 소기업개발,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 목적인 고용창출, 여성 경제권 강화, 청년 고용, 녹색 성장, 혁신정책에 대해서도 짚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민간부문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여기관의 PSD 지원 전략 및 접근유형과 KOICA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타 공여기관의 전략을 바탕으로 KOICA에의 시사점과 KOICA에 적용 가능한 PSD 접근유형을 도출해보기로 하겠다.

연구는 선행 연구 및 각 공여기관의 전략 문서들을 조사하고, KOICA 내외 관련자 및 타 공여기관의 관련자를 직접 또는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초기 문헌 조사를 통해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다룬 여러 연구가 실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KOICA에서도 2012년 『개도국 민간부문 활성화 ODA 방안 : 빈곤층 친화적 시장개발(MM4P)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선진 공여기관의 개도국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고 SIDA와 KOICA의 MM4P사업을 비교분석하여 민간부문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산업연구원에서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개도국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의의와 유형, 영국과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사례와 한국 사례를 살펴본 후, 베트남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민간부문현황과 이들 부문의 개발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 지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한국 전체의 PSD 방향성, 또는

PPP사업 사례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KOICA의 PSD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공여기관 모임에서 새롭게 구분된 개념인 PSD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고 PSD 지원 사업의 평가방법을 다루고 있는 연구도 드물다. 따라서 동 연구는 PSD 접근유형 대해 살펴보고 KOICA라는 공여기관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접근유형이 무엇인지에 분석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다른 연구와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KOICA가 지원하는 모든 개도국의 민간부문현황을 파악하여 개도국 별로 KOICA의 접근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기관 차원에서 일반적인 PSD 전략 및 접근유형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동 연구의 한계라는 것을 밝혀둔다.

II. 민간부문개발(PSD)의 개념과 동향, 접근유형, 목적

1. PSD란

민간부문(private sector)은 개인소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시장과 경쟁이 생산을 주도하며, 민간주도와 위험감수가 행위의 초석이 되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OECD, 1995). 따라서 이러한 민간부문원칙은 농업, 산업,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범분야(cross-cutting)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민간부문은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협력 지원 분야와는 다른 준위의 구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라고 했을 때는 민간기업, 시민사회, 연구기관, 학교, 종교기관, 재단 등 공공이 아닌 모든 주체를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간 기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 이유는 앞서 OECD(1995)에서 언급한 시장과 경쟁이라는 민간부문의 기본 요소를 고려했을 때 민간 기업이 이러한 구분 기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업은 형태 및 규모에 있어서 정규(formal) 및 비정규(informal) 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민간금융기구, 비즈니스 연합 및 노동단체 등을 포함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기관별로 다양한 PSD 정의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개념은 PSD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기존보다 잘하기 위한 방법(a means of doing things better)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시장친화적이며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하는 개발원조사업의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정지선 외, 2011). 한편, OECD (2016)는 PSD를 ‘개도국 지역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역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 시장 기능, 기업자원을 다루는 개발 협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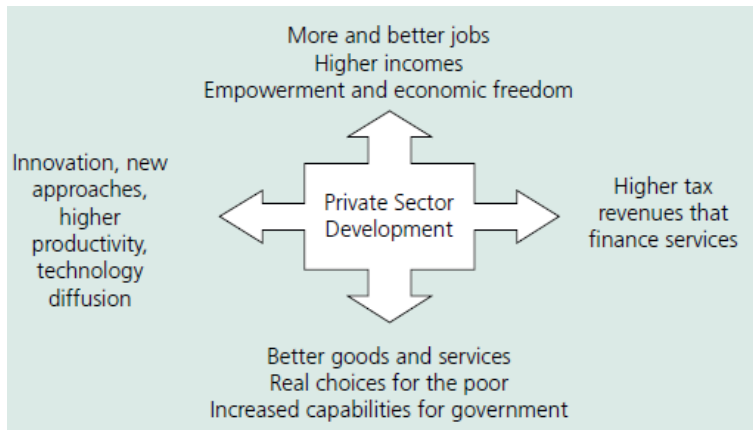
〈표 1〉 공여기관별 PSD 정의

공여기관	PSD 정의
SIDA	We therefore define PSD as the process by which the PBS moves along the path to becoming well functioning.
World Bank	PSD is about a way of doing things. Overall, PSD is about tapping private initiative for promoting growth, reducing poverty and helping people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CIDA	The objective of CIDA's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policy is to create more, better, and decent jobs and sustainable livelihoods by helping markets to function well and by stimulating the growth of the local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Austrian Development Agency	PSD is often defined as a (donor) strategy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reduc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by building private enterprises, membership organizations to represent them, and competitive markets that are stronger and more inclusive.
OECD	This report defines PSD "as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addresses policies and institutions, market functioning and enterprise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investment climate and the productivity capacity of the local private sector—particularl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in developing countries"

출처: SIDA (2001:8), World Bank (2002:4), CIDA (2003:1), Austrian Development Agency (2013:17), OECD (2016:6)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렇게 PSD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D를 통해서 개도국이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빈곤층에게는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라는 실질적인 구매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질 높은 다량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자유와 권한 확보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인하여 증대되는 세수는 정부로 하여금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하며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초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혁신 및 새로운 접근법, 높은 생산성 및 기술의 확산을 도와 개발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

〈그림 1〉 PSD의 혜택



출처: DfID (2008:10)

2. PSD 지원 동향

PSD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협력 지원 분야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범분야적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부문 걸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 등 다양한 산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서비스 부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PSD 지원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CRS코드(원조목적코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통계로 구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지원액

Austria Development Agency, ADA (2013)는 PSD와 가장 관련이 있는 원조목적코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금융 및 재무서비스(240XX),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250XX), 공업·광업·건설(32XXX), 관광(332XX)이 PSD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분야들의 지원액을 PSD 지원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공여기관에 따라서 이러한 협의의 PSD에 통신(220XX), 에너지(230XX), 농림수산업(310XX)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확대된 PSD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의의 PSD와 확대된 PSD 지원액의 과거 10년 DAC 공여국 ODA 실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협의 PSD 지원액은 전체 ODA에서 4%~5%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40~50억 달러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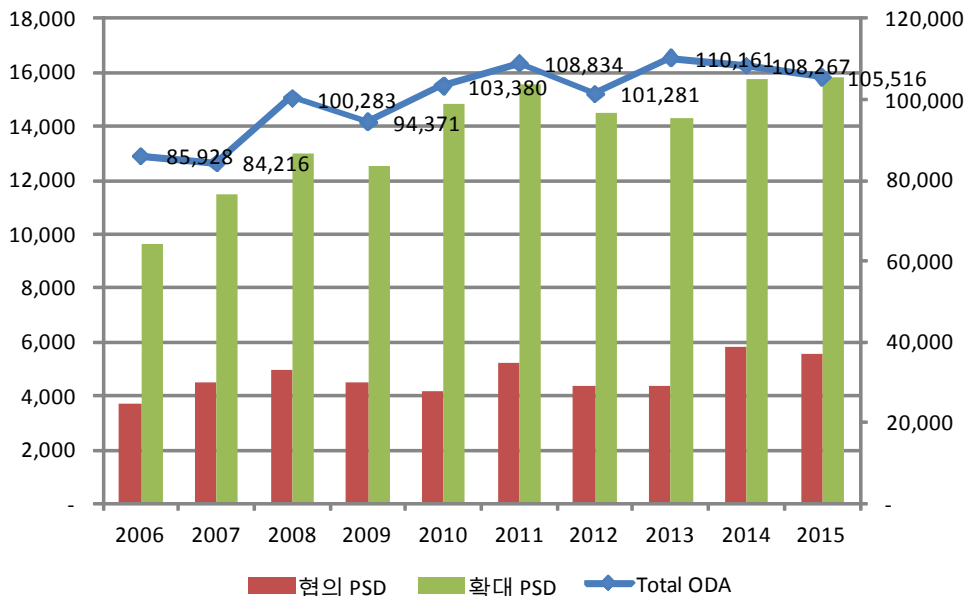
민간부문개발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지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확대 PSD 지원액을 살펴보면 전체 ODA에서 13~15%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130~140억 달러 정도이다.

〈표 2〉 DAC 공여국의 PSD 지원 실적 (2006-2015)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협약 PSD(A)	3,728	4,485	4,951	4,518	4,167	5,227	4,371	4,400	5,832	5,578
확대 PSD(B)	9,616	11,467	13,002	12,500	14,848	15,555	14,504	14,291	15,768	15,825
전체 ODA 중 A비율(%)	4	5	5	5	4	5	4	4	5	5
전체 ODA 중 B비율(%)	11	14	13	13	14	14	14	13	15	15

출처: stats.oecd.org의 CR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명목, 총지출, 백만 달러 기준, 접속일: 2017.4.18)

〈그림 2〉 DAC 공여국의 PSD 지원 실적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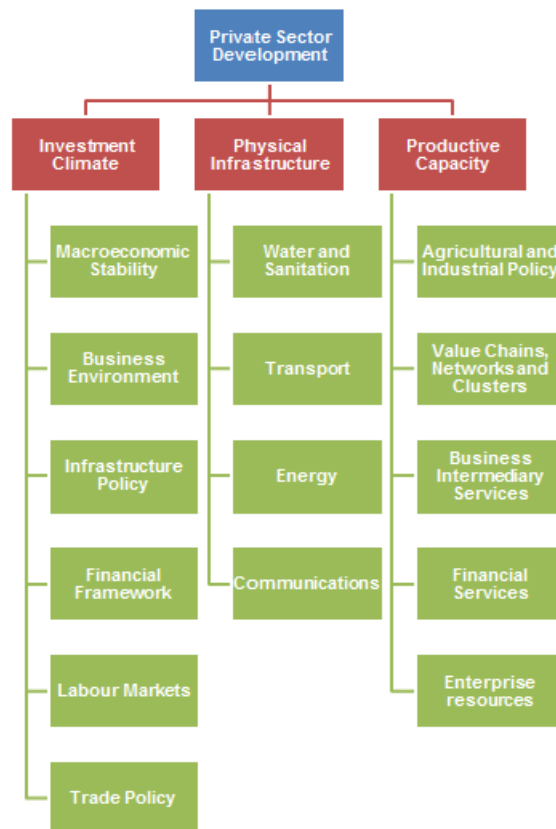
출처: stats.oecd.org의 CR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명목, 총지출, 백만 달러 기준, 접속일: 2017.4.18)

2) 지원영역

OECD(2017)는 공여기관의 개도국 PSD 지원영역을 분석하는데 2가지의 틀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틀은 <그림 3>와 같이 지원영역을 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생산역량(Productive Capacity) 프레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틀은 <그림 6>과 같이 지원영역을 개입하는 준위에 따라 상류(upstream), 중간(midstream) 하류(downstream)로 구분하는 것이다.

①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 지원

<그림 3> PSD 영역



출처 : OECD (2017:13)

투자환경은 공공부문이 시장참여자들을 위해 비용, 위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조정체제로 거시경제안정,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정책, 금융 체계, 노동시장, 무역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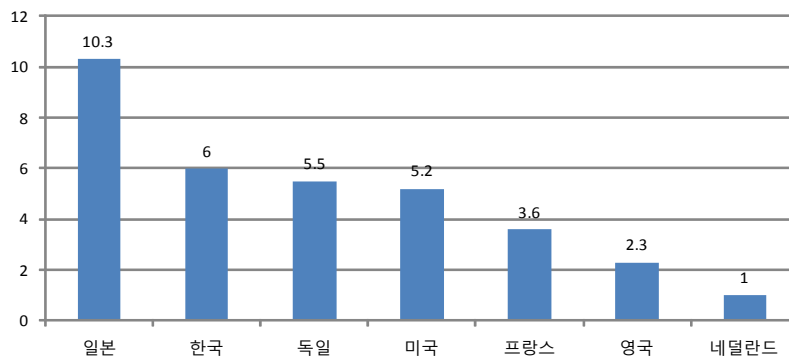
관련한 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프라는 물과 위생, 교통, 에너지, 통신 부문 등 경제기반시설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이며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모두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투입 및 산출, 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의 생산역량이 인프라 서비스 달려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서비스의 부재로 최적의 생산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새로운 사업영역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역량지원은 금융이나 기술 지원 확대, 관리개선이나 혁신을 통한 능률화를 통해 특정 경제 부문이나 회사의 산출 극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분야의 정책 강화, 친빈곤적이며 책임성 있는 시장 시스템 장려, 기업재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와 관련된 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OECD(2017)은 또한 2013년 기준, 어떤 공여국이 PSD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공적 개발재원(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 금액을 분석하였는데 국가별로 다양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림 4>와 같이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총 7개국으로 일본,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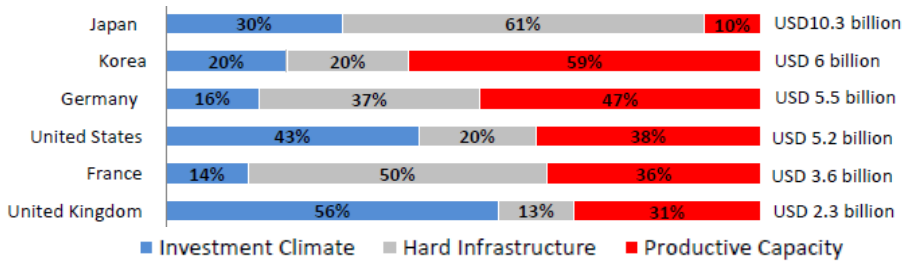
〈그림 4〉 2013년 DAC 회원국의 ODF 상위 7개국 (단위: 10억 달러)



출처 : OECD (2017:23)

그리고 공여국 별로 ODF 중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 중 어떤 영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지 분석하였는데 투자환경에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큰 국가가 미국과 영국, 인프라에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큰 국가가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생산역량에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와 독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2013년 DAC 회원국의 PSD 관련 분야에 배분된 O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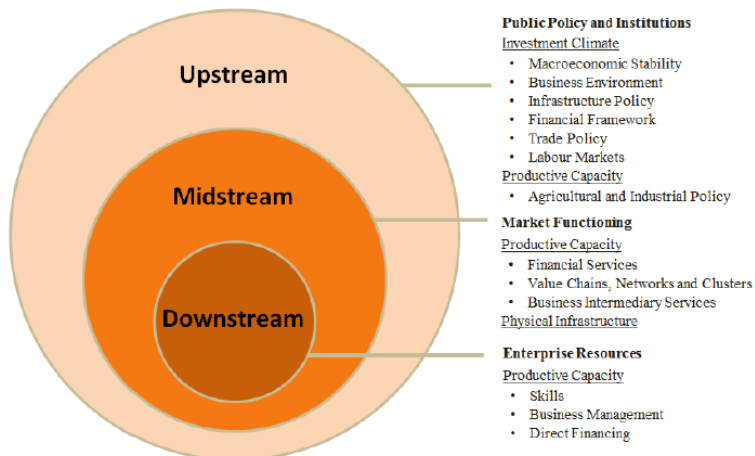


출처 : OECD (2017:23)

② 상류, 중간, 하류 구분법

상류 부문은 공공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안정,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정책, 금융체제, 무역정책, 노동시장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덧붙여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공업 정책 또는 제도적 구조를 개선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중간 부문은 시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시장 구성요소들을 강화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서비스, 가치 사슬·네트워크·클러스터, 비즈니스 중개 서비스 등 생산역량 강화 활동과 인프라 제공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하류 부문에는 기술 지원, 경영 관리, 직접 재정 지원 등 개도국의 현지 기업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생산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6〉 공여기관의 PSD 지원영역



출처 : OECD (2017:14)

OECD(2017)는 또한 DAC 공여국가별로 각 영역의 지원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조목적코드를 영역별로 매칭하여 지원액을 산출하였다.¹⁾ 이렇게 OECD가 구분한 PSD 관련 목적코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색깔로 표시된 것들은 앞서 ADA가 구분한 목적코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코드들이다. 이 계산 과정을 거치면서 OECD(2017)은 두 가지의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PSD 프로그램이 특성상 다목적에 지향하고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혼합되어 있어 특정 사업이 PSD 영역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원조목적코드가 PSD 지원액을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PSD의 특정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엔 현재의 원조목적코드는 너무 범위가 넓거나 좁기 때문이다. 따라서 DAC 공여국의 PSD 지원액의 흐름을 볼 때 이러한 한계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표 3〉 PSD 지원영역별 원조목적코드 구분표

공공정책 및 제도 (upstream)	시장기능 (midstream)	기업자원 (downstream)
Investment Climate	Physical Infrastructure	Productive Capacity
부패방지 기구 및 기관 15113	항공운송 21050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11430
통신정책 및 행정 관리 22010	바이오매스 23070	농업협동조합 31194
분권화 및 지방 정부 15112	석탄화력발전소 23063	농업개발 31120
운송 및 참고분야 교육 21081	전력송전 및 배전 23040	농업관련 교육훈련 31181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14081	가스 공급 23050	농업지도 31166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16020	가스화력발전소 23062	농업관련 기자재 31150
에너지 교육 훈련 23081	지열에너지 23066	농업연구 31182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 23010	수력 발전소 23065	농수산물 가공업 32161
에너지 연구 23082	ICT 22040	철강산업 32169
금융 정책 및 행정관리 24010	원자력 발전소 23064	시멘트/인조대리석/소석회32166
일반 예산지원 관련 원조 51010	해양에너지 23069	화공 32164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15130	석유화력발전소 23061	가내공업 및 수공업 32140
중앙 금융기관 24020	재생불능자원 발전소 23020	금융 및 재무부문교육 24081
공공부문 재정관리 15111	재생가능자원 발전소 23030	에너지가공 32167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15110	라디오/TV/미디어 22030	엔지니어링 32171
지역 무역협정 33130	철도운송 21030	비료공장 32165
무역조정 33150	하천개발 14040	어업개발 31320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21010	도로운송 21020	어업교육 및 훈련 31381

1) 이 계산을 위한 OECD는 사업을 activity 레벨까지 보고하는 회원국의 75,000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공공정책 및 제도 (upstream)	시장기능 (midstream)	기업자원 (downstream)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33110	태양에너지 23067	어업연구 31382
수자원 정책 및 행정관리 14010	창고 21061	식량생산 31161
Productive Capacity	통신 22020	임산물 가공 32162
농지제도 개혁 31164	폐기물 관리/처리14050	경제작물/수출작물 31162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111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대규모시스템 14020	공업개발 32120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31310	대규모 상수 시스템 14021	축산 가축 31163
공업정책 및 행정관리 32110	수로운송 21040	비철금속 산업 32170
	풍력 에너지 23068	의약품 생산 32168
	Productive Capacity	병충해구제 31192
	농지개발 31130	중소기업개발 32130
	농업금융서비스 31193	기술연구개발 32182
	농업관련 서비스 31191	섬유/피혁/대체소재 32163
	농업용수자원 31140	무역교육 및 훈련 33181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25010	수송기계 산업 32172
	어업서비스 31391	직업훈련 11330
	공공금융기관 24030	
	비정규/유사금융기관 24040	
	축산진료 31195	
	무역진흥 33120	

출처: OECD (2017:3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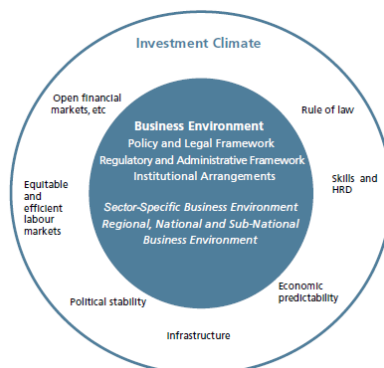
3. 접근유형 5가지

민간부문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식 공유 및 상호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개발을 위한 공여위원회'(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DCED)에서는 여러 공여기관의 PSD 전략을 분석하여 PSD 접근유형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DCED, 2017b).

1) 비즈니스 환경개선 (Business Environment Reform)

비즈니스 환경은 비즈니스 활동을 관리하는 정책, 법률, 제도, 규정의 종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은 투자환경의 부분집합이며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및 시행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 경제 주체들이 활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이 시장주도 성장에 적대적이며, 민간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의 선행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은 시장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하며 다른 개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그림 7〉 비즈니스 환경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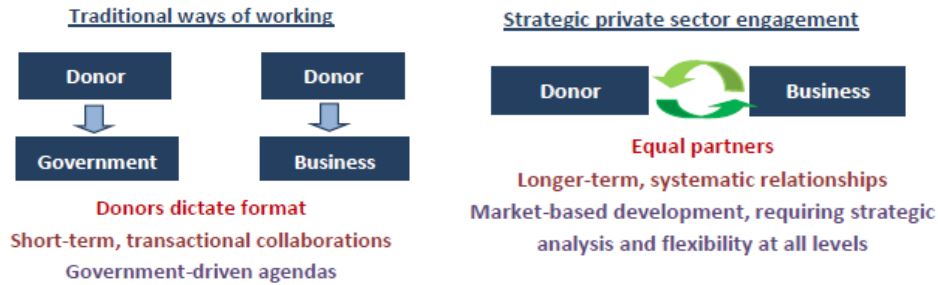


출처 : DCED(2008:2)

2) 민간섹터참여 (Private Sector Engagement)

최근 공여기관들은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기업들과 맺어왔던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 전문성, 혁신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레버지리 하기 위해 민간섹터와 동등한 파트너관계를 맺으며 이들을 개발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섹터를 하나의 이행 주체로 참여시키는 접근유형을 민간섹터참여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림 8〉 민간섹터와의 관계 기존 vs. 최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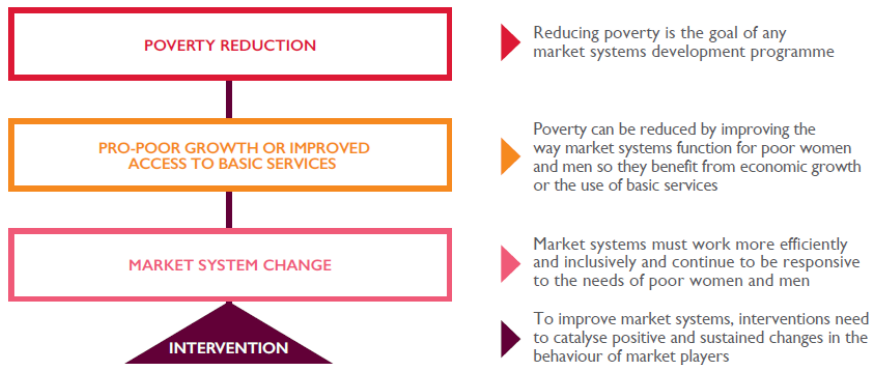


출처: DCED (2017a:1)

3)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M4P)

M4P 접근유형은 빈곤계층이 생계를 의지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포용성과 장기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유형은 기본적으로 시장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 빈곤층이 시장에서 내는 성과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빈곤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 빈곤 친화적 시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 체계



출처: SDC(2015:5)

유통 개선을 통한 빈곤층의 시장 접근 및 참여확대로 인한 시장에 대한 만족도 개선, 중요한 시장 참여자나 기능의 관습, 역할, 성과의 변화, 시장참여자들의 명확한 주인의식 및 태도 변화, 시스템 변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성 확보, 변화된 시스템의 독립적 지속가능성 유지 등이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의 예가 될 수 있겠다.

4) 소기업개발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기업의 규모는 고용인의 숫자에 의해 구분된다. World Bank Enterprise Survey는 5-19명의 고용인을 보유한 기업을 소기업, 20-99명을 보유한 기업을 중기업이라고 구분한다. 반면 World Bank 그룹은 내부적으로 0-10명을 초소기업(micro-enterprise), 10-49명을 소기업, 50-299명을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DCED(2016c)에 따르면 고용의 50%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빈곤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 기회를 얻는 곳이 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여기관들이 소기업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4〉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소기업	중소기업
Employment across countries	16%	46%
Job creation across countries	45%	75%
Employment in low income countries	23%	51%
Job creation in low income countries	58%	89%

출처: DCED (2016c:1)

5)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UNCTAD의 정의에 의하면 산업정책은 정책 도구를 가지고 특정 산업 또는 분야를 촉진하고 장려하기위해 들이는 정부의 일치되고 집중적이며 의식적인(concerted, focused, conscious)노력이다(DCED, 2014). 또한 World Bank는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을 산업정책이라고 정의한다. 공여기관들은 개도국 정부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며 이들의 경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경공업 개발, 농업생산성 향상 등 산업정책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의 무역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4. PSD의 목적

DCED는 공여기관이 PSD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목적을 고용창출, 여성 경제권 강화, 청년 고용, 녹색 성장, 혁신정책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고용창출 (Employment Creation)

공여기관이 PSD를 지원하는 목적 중 하나는 개도국 빈곤층의 고용창출을 위해서이다. 민간 부문이 발전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 주민들은 그곳에 고용되어 일정한 소득금액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일상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능력을 갖추게 된다. 즉 PSD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받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USAID(2015)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직업조차도 극심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유지할 때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받는 직업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다면 빈곤 감소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창출이 많은 공여기관의 아젠다에 포함되어 있다(DCED, 2017c).

2) 여성 경제권강화 (Women's Economic Empowerment)

두 번째 목적은 개도국 여성의 경제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USAID, DFID, SIDA 등 다수의 공여기관은 최근 여성 경제권 강화 및 성 평등 실현을 새로운 PSD 전략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단지 경제적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증가된 소득을 바탕으로 자녀 및 가족 구성원의 교육과 보건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빈곤 감소의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상당한 경제적·비경제적 혜택을 창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이유로 PSD 사업은 여성이 법적·제도적·사회적 제약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가적 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며, ICT 접근성을 향상하여 여성 기업가 양성에 힘쓴다(DCED, 2015a).

3) 청년 고용 (Youth Employment)

공여기관은 또한 PSD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 증가 및 일자리 개선에 기여한다. 청년은 생산 가능인구로서 향후 국가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성장 동력이나, 개도국의 대다수 청년들은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PSD 사업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고용 창출까지 지원한다.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기술훈련 제공은 청년들의 기술 습득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MasterCard Foundation, 2015).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창업 스킬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보조금 지원 및 저금리 대출을 통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여 청년 창업가로 거듭나도록 독려하며, ICT 접근성 및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한다(DCED, 2017d).

4) 녹색 성장 (Green Growth)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녹색 성장 추구이다. 개도국 민간부문은 새롭게 대두되는 기후변화 적응 문제에 있어서, 제한적인 자원 활용 및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특히 직·간접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PSD 사업은 민간부문에 자원 이용성 향상을 통한 직접 지원을 제공하거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소규모 민간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 및 기술을 전수 한다. 실제로 민간부문은 내건성 작물, 재난위험관리에 필요한 보험 및 내구성 강한 재료 등과 같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기존의 시장을 확대하거나 신 시장을 형성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낮추고, 잠재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의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다수의 공여기관은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PSD 사업을 시행하며 녹색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DCED, 2016b).

5) 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공여기관은 또한 개도국의 PSD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혁신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제품 및 제조과정은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개도국 경제 전체 차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이끌며, 고용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빈곤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특정 니즈를 파악하고 구매 가능한 친빈곤층 기술이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가들의 기술혁신 참여 여부는 시장 기능이나 사이즈에 의해 형성되는 인센티브에 달려 있는데 개도국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인프라 부족, 낮은 인당 수익, 잘못된 정책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시장 크기가 작고 분절화 되어 있으며 완전하지 않다. 또한 재원조달의 낮은 접근성, 시장 정보 부족, 기술 결여라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 혁신 활동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개도국은 혁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작은 기업수록 혁신의 장기적인 혜택이나 혁신 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여기관은 개도국 정부에 재산권, 관료적 형식주의 제거, 재원조달 접근성 개선, 세금 혜택 등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여 개도국에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호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게는 연구를 위한 시설과 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학계 사람들을 교육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영업 자문 및 재원 제공, 기술 개발, ICT 접근성 개선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혁신 및 신기술 도입의 혜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생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립, 신기술 지도, 제품의 상업화, 허가, 특허 취득을 위한 기술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III. 공여기관의 PSD 접근유형 및 사례

OECD에서 공여기관의 중점 지원 PSD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즈니스 환경개선, 기업 지원, 가치사슬 및 중간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시 경제 안정 및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두 분야가 외부의 개입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5〉 공여국 전략 내 중점 지원 PSD 영역

	INVESTMENT CLIMATE				PRODUCTIVE CAPACITY				BOTH
	Macro-Stability	Business Environment	Labour Markets	Trade Policy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licy	Financial Services	Value Chains and Business Intermediaries	Enterprise Resources	Infrastructure
AfDB	•	•			•	•	•	•	•
AsDB	•	•							
IADB		•		•	•	•		•	•
WBG	•	•		•	•	•	•	•	•
EU	•	•			•	•	•	•	•
USA		•		•			•	•	•
Sweden	•	•	•	•	•	•	•	•	•
Norway		•		•			•	•	•
Germany		•	•		•	•	•	•	•
Netherlands		•		•		•	•	•	•
UK		•				•	•	•	•
Japan		•		•	•		•	•	•

출처 : OECD (2017:18)

이들 국가 중 PSD 관련 지원영역 별로 두드러진 기여를 하고 있는 독일, 일본, 미국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들 국가 내에서도 무상원조 기관인 GIZ, JICA, USAID를 중점적으로 비교해보도록 한다.

1. 독일/GIZ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대부분 비공식부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소기업 또는 초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일은 개도국의 민간부문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낮은 경쟁력 그리고 다각화 결여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개도국에서는 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반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평균적으로 개도국 공식부문의 중소기업이 고용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BMZ, 2013).

독일은 개도국 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원인을 호의적이지 못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환경, 창업 서비스 접근 부족,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상호 교류 결여라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접근 부족, 인프라 부족, 빈약한 교육 시스템도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세계화 및 가치사슬의 국제화로 인하여 다양한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 새로운 시장에 접근 가능하며 수출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개도국의 기업들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으며 자신들의 생산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지원영역

GIZ은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가 수립한 민간부문지원전략을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고 있으며 그래서 BMZ의 전략이 곧 GIZ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GIZ가 지원하는 개도국의 PSD 영역은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운영과 투자를 위한 호의적인 환경 조성(upstream)과 개도국 기업의 혁신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지원(downstream), 그리고 현지 또는 다국적 민간부문과의 직접협력(downstream)이다. 이는 앞서 분석한 개도국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모색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2) 접근유형

DCED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PSD 지원 접근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GIZ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접근유형은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중소기업개발, 민간섹터참여 라고 볼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에서는 기회와 위협요소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률, 규정, 행정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규정이나 행정적인 제약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의 분석, 이행, 모니터링 능력을 배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과정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소기업개발에서는 비즈니스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가적 스킬을 강화시켜주며,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주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local, regional, international 가치사슬내에서 그들의 위치를 잘 세우고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기업과 수원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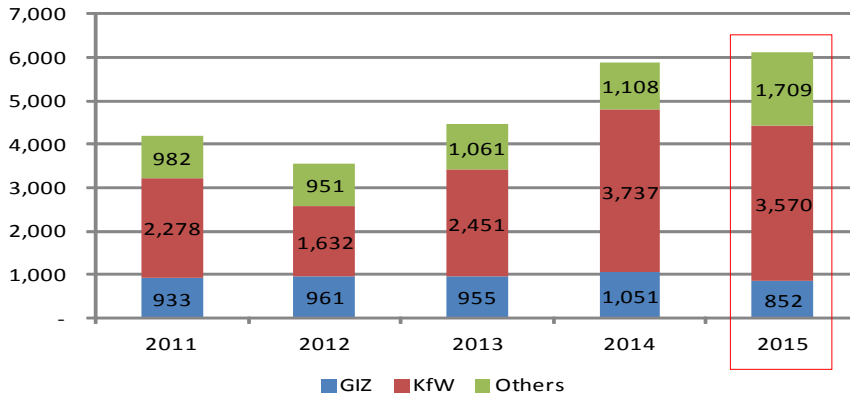
민간섹터참여에서는 develoPPP. de 프로그램²⁾과 같은 민간섹터와의 개발 파트너십, 비즈니스 협회와 협업, CSR 촉진, 포용적 비즈니스 증진, 반부패 활동, 전문가 및 재원 제공 등의 매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연구 기관과 기업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혁신에 도움 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지원금액

OECD(2017)에서 정의내린 PSD 지원 관련 원조목적코드를 바탕으로 독일의 PSD 지원 관련 ODA 금액을 분석해 보면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개도국의 PSD에 기여하는 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ODA 명목 금액 기준, 약 58%가 독일개발은행(KfW)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으며, 약 14%가 GIZ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나머지 28%는 기타 정부부처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PSD 지원영역 중 인프라 부분이 유상원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fW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2) 독일의 Challenge Fund로 BMZ이 자금을 제공하며 3개 기관(GIZ, KfW-DEG, Sequa)이 집행을 담당한다. 모든 유럽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 분기별로 4번 공모하고 여러 개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1개 기업 당 1개 사업만이 선정된다. 일반 지원은 최대 20만 유로, 전략지원은 최대 70만 유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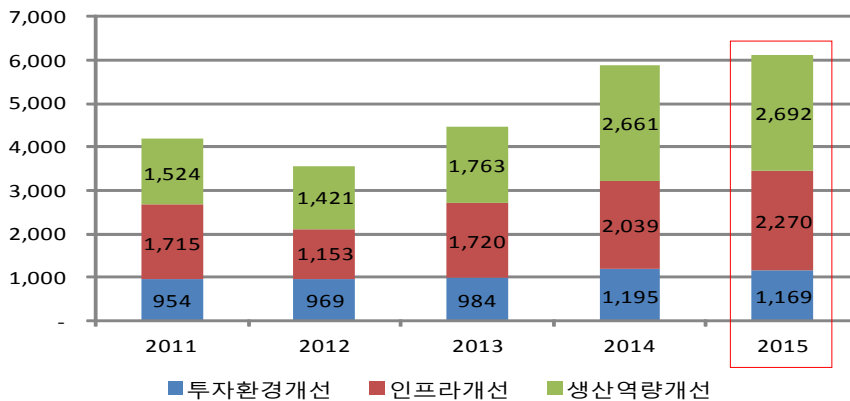
〈그림 10〉 독일 기관별 PSD 자원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생산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11>을 보면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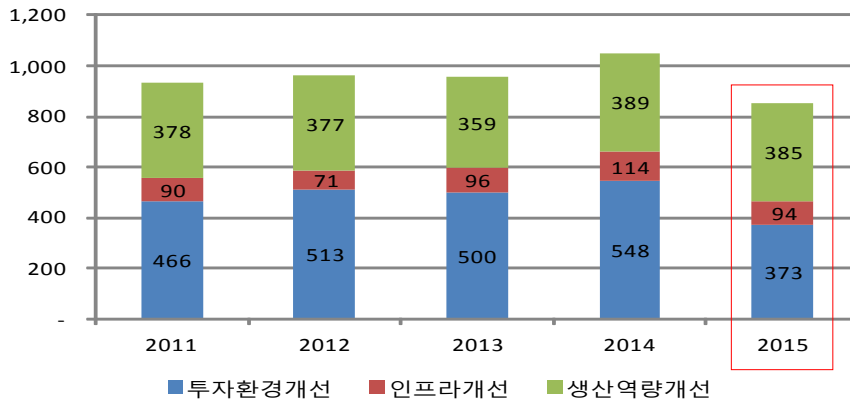
〈그림 11〉 독일 PSD 자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GIZ는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에 각각 44%, 11%, 45%를 투입하고 있어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독일 GIZ PSD 자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환경에서는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의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독일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직업훈련 사업도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야의 지원 사업이 모두 PSD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다만 이 분야를 지원함으로 인하여 민간부문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 독일 GIZ PSD 자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자원영역	원조목적코드	건수	비율
투자환경 360건	수자원정책 및 행정 관리	43	12%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93	26%
	공공부문 재정관리	33	9%
	분권화 및 지방 정부	50	14%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29	8%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14	4%
	에너지정책 및 행정관리	40	11%
	기타	58	16%
인프라 91건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대규모 시스템	8	9%
	폐기물관리/처리	9	10%
	재생가능자원 발전소	38	42%

지원영역	원조목적코드	건수	비율
	태양에너지	12	13%
	바이오연료 발전소	8	9%
	기타	16	18%
생산역량 254건	직업훈련	59	23%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7	3%
	공공금융기관	7	3%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81	32%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5	6%
	농업개발	26	10%
	농지개발	8	3%
	중소기업개발	8	3%
	무역진흥	7	3%
	기타	36	14%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17.7.7)

4) 사업 사례

GIZ의 PSD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 3년인 사업도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5년 이상이며 길게는 11년 3개월까지 지원한 사업도 있다. 또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개 사업 중 약 59%인 10개 사업³⁾이 초소·소·중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소기업개발 접근유형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제조업을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 독일로써는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지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GIZ의 PSD 지원 사업 사례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EUR)	목표
베닌	소기업 진흥	1998년 1월 ~ 2007년 1월 (9년)	5,240,742	민간 기업이 좀 더 호의적인 경제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근로조건과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함.

3) <표 7>의 베닌, 조지아, 콰테말라, 크로아티아, 몽골, 페루,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개발커뮤니티,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EUR)	목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경제개발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2003년 1월 ~ 2007년 12월 (5년)	2,908,600	선택된 산업의 민간 기업이 개발회와 성장을 활용하고, 개선되고 있는 고용상황에 기여하게 함. 기업가의 잠재력 집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엘살바도르	경제개발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2002년 4월 ~ 2008년 3월 (6년)	14,000,000	지역 및 국가레벨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제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택된 정부와 민간기관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토록 함.
조지아	민간부문개발	2005년 1월 ~ 2012년 12월 (8년)	4,300,000	초소·소·중기업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민간 기관의 서비스가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함.
과테말라	초소·소·중기업 촉진 프로그램	1997년 11월 ~ 2007년 12월 (10년 2개월)	5,600,000	선택된 경제 분야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성장기의 사업가와 비즈니스가 서비스 및 상품 시장과 고용 시장에서 개선된 경쟁력을 갖도록 함.
키르기스스탄	무역과 투자 촉진	2000년 1월 ~ 2002년 12월 (3년)	1,790,000	키르기스스탄의 민간 기업의 국제적 & 지역적 경제 관계 강화
크로아티아	경제개발 및 고용 촉진	2005년 1월 ~ 2009년 12월 (5년)	2,650,000	선택된 분야와 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개선
모로코	모로코 경제의 국제경쟁력 개선	사업기간 : 1999년 11월 ~ 2010년 12월 (11년 2개월)	13,000,000	모로코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개선
몽골	중소기업 촉진	1998년 10월 ~ 2007년 3월 (8년 6개월)	6,202,000	목재, 건설, 인쇄, 가죽, 울/캐쉬미어, 관광 산업의 경쟁력 센터가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
페루	선택된 지역의 중소기업 촉진	1997년 10월 ~ 2003년 9월 (6년)	3,900,000	선택된 지역 우선순위 분야의 중소기업이 기업 관리 및 생산성을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를 조직적으로 구성하며, 그곳의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토록 함.
루마니아	민간부문 및 고용 촉진 프로그램	2003년 1월 ~ 2009년 3월 (6년 3개월)	14,000,000	효과적인 촉진 구조와 도구가 민간부문의 선택된 영역에서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개선시키도록 함.
세르비아	민간부문 및 고용 촉진 프로그램	2003년 9월 ~ 2010년 12월 (7년 4개월)	2,650,000	선택된 비즈니스 섹터와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
네팔	네팔-독일 통합 경제 촉진	1998년 11월 ~ 2007년 12월 (9년 2개월)	5,888,000	최소 5개의 비즈니스 섹터와 최소 5개 지역의 경쟁력 개선, 무역 투자회의소 강화, 소득 및 고용에 긍정적 효과 도출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EUR)	목표
남아프리카 개발 커뮤니티(SADC)	민간 비즈니스를 위한 자문 서비스	1996년 1월 ~ 2007년 3월 (11년 3개월)	6,000,000	선택된 민간부문 조직이 SADC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지역 프로모션에 중요한 기여를 함.
남아프리카	지방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 : 사업 개발 서비스와 지방 경제 개발	2002년 11월 ~ 2010년 2월 (8년 4개월)	5,300,000	성장주도의 중소기업이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가 공동 협력하며, 지역 경제 개발이 참여적이고 지역, 민간부문, 시민사회 간의 경쟁주도의 협력이 라는 맥락에서 계획되고 이행되도록 함.
탄자니아	비공식부문 경제의 자조조직 강화	1991년 9월 ~ 2002년 4월 (10년 8개월)	5,465,000	초소·소기업가가 SIDO (소산업개발조직) 및 타 협력 파트너로부터 제공되는 개선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음.
태국	소규모 산업 촉진 프로젝트	1997년 1월 ~ 2003년 12월 (7년)	5,000,000	좀 더 많고 경쟁력 있는 기업가가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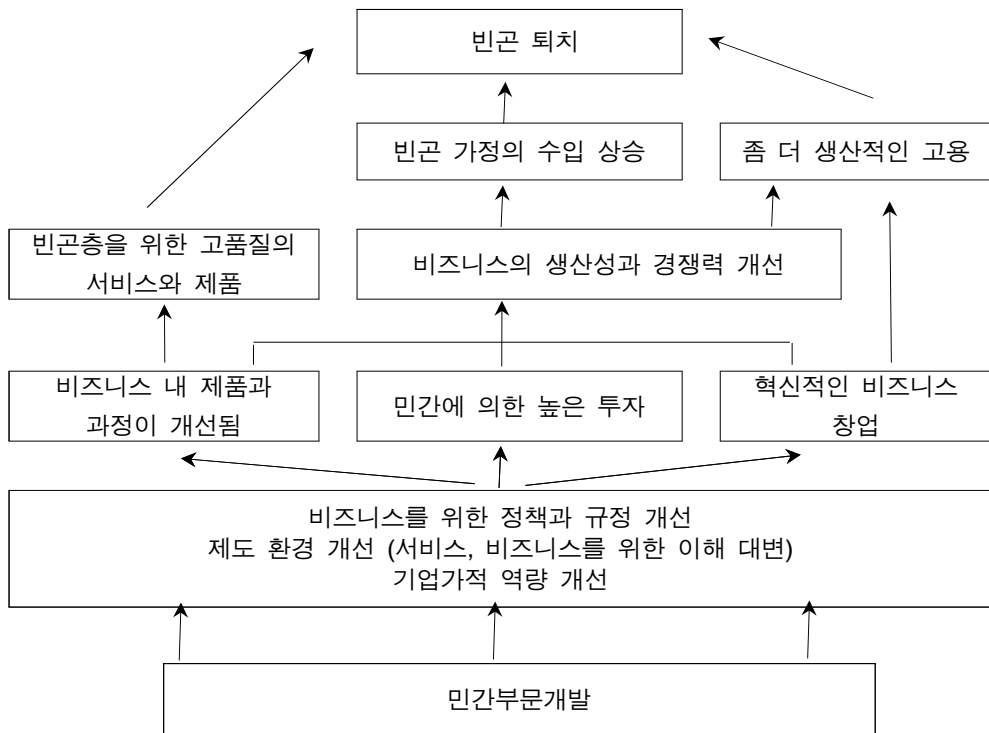
출처 : GTZ (2008: 13-22)

5) 목적, 타겟그룹 및 기대 성과

독일 BMZ의 민간부문개발의 목적은 개도국의 민간 비즈니스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충분한 기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타겟그룹은 창업가 및 그 밑의 직원들이며, 공식부문의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비공식부문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초소·소·중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기업이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 개도국 인구의 다수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PSD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는 생산적인 고용 창출과 수입창출, 빈곤 퇴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민간산업 육성과 직업훈련 개선 그리고 노동시장 기능 효율성 개선을 함께 진행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수립되어야 하고, 민간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기업 거버넌스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13〉 독일의 PSD 결과들



출처 : BMZ (2013:15)

6) 지원 원칙

독일 BMZ은 3가지의 PSD 지원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접근과 결과 중심(Systemic Approach and Result Orientation)이다.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함에 있어 개별적 기관, 회사, 정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지원들이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중심으로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데 힘쓰고 있다. 두 번째는 보완원칙과 수요중심(Subsidiarity and Demand Orientation)이다. 즉, 독일이 지원이 다른 비슷한 지원과 겹치지 않도록 중복을 피하고 민간 공급자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개발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요 중심 또는 시장에 기반을 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단 경쟁을 통해서 상업적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다. 지원 사업들이 추후

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과 청년층 그리고 취약계층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인구 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원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세스와 환경 및 기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략 및 상세 방향

BMZ은 개도국의 생산적인 고용 창출과 수입창출, 빈곤퇴치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환경 조성,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수립,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라는 3가지의 이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적절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환경 조성

적절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환경 조성 전략 안에는 국내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와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비즈니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적 행정적 장애물을 줄이고, 정부 관료들의 이행 및 분석 역량을 키우며,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련 규정 및 기준을 간소화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②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수립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수립 전략에는 분야별 경제 촉진 및 가치사슬 장려, 지방 및 지역 경제개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민간 부문 장려, 효과적인 혁신 시스템 확립, 비즈니스개발서비스와 기업의 이익대변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분야별 경제 촉진 및 가치사슬 장려는 성장이 기대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니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가치 사슬의 행위자로서 특별히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인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두 번째, 지방 및 지역 경제개발에는 선택된 지역 및 경제구역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지역의 경쟁우위 요소를 찾는 걸 돕고 이를 지원할 정책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민간 부문 장려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친환경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시스템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네 번째, 효과적인 혁신 시스템 확립에서는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지식, 기술, 혁신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기업의 혁신능력은 국가의 혁신 시스템에 의해 배양되기 때문에 개도국 정부가 혁신 전략 및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개발서비스와 기업의 이익대변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강화에서는 비즈니스개발서비스 기관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와 같은 비즈니스 멤버십 기관들이 민간 부문의 이익을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제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③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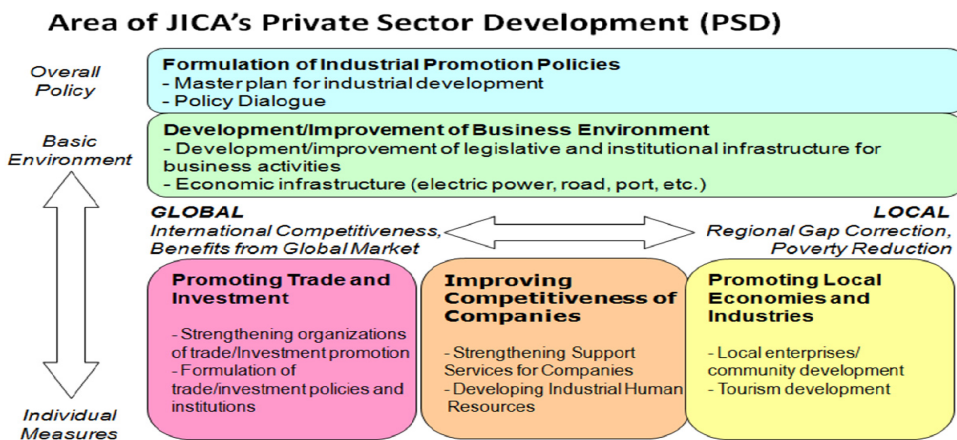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전략에는 개발친화적 투자 지원,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장려, 기업의 CSR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개발친화적 투자 지원에는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중 지속가능하고 환경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자금들도 이러한 비즈니스에 같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을 가치사슬 안에 생산자, 소비자, 고용자, 사업자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CSR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좀 더 건전한 세계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환경보호, 효율적 자원이용, 노동권, 인권, 안전,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수원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국가에는 시장경제체제요건 수립, 경제 취약 지역 강화,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문의 포용적 성장 프로세스 유도, 중소기업의 경제사이클 참여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소득 국가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민간 분야의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활성화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분쟁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일자리 창출, 분쟁의 근본원인 해소, 시장구조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국가에 단기 긴급원조를 제공하면서 재건과 재통합을 위한 중기 경제활동 촉진을 함께 시행한다.

2. 일본/JICA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은 프랑스와 함께 인프라시설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결국, 일본도 민간 부문이 개도국의 경제 개발의 주요 동력을 여기고 개도국의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본의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개도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JICA가 개도국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4〉 JICA의 PSD 전략



출처 : DCED 웹사이트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agency-strategies-and-coordination/japan-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jica> (접속일 : 2017.6.1)

1) 지원영역

PSD의 여러 지원영역 중에서도 일본은 4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upstream), 무역과 투자 장려(upstream), 기업의 경쟁력 강화(downstream), 개도국 지역 경제 및 산업 촉진(midstream)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산업 발전이 개발의 엔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과 제도 개발을 통해 개도국이 민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산업부흥정책과 상법 및 제도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 장려 중 투자 부문에서는 개도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FDI를 개도국이 성장엔진 및 내수 진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투자환경개선과 투자촉진기능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경제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의 간소화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도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는 일본의 제조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훈련센터 설립을 통해 미래의 산업일꾼을 키우고 있다. 기업지원서비스 측면에서는 노동, 기술, 자본, 정보 등의 자원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주로 중계지원조직(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을 통해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지역 경제 및 산업 촉진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더 넓은 지역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농산물 가공 또는 수공업품 제작 중소기업이나 조합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직접 넓힐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영업 관리 지식, 지역 자원 조사 및 활용, 생산성 및 품질 개선, 식품 위생 확보, 포장 및 디자인, 마케팅 및 세일 프로모션등과 관련된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 각 지역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2) 접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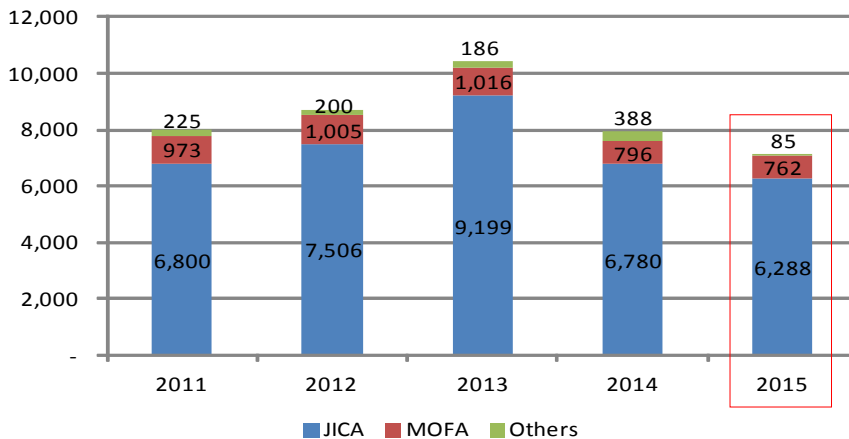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지원영역을 바탕으로 DCED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PSD 접근유형을 매칭해보면, JICA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접근유형은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소기업개발, 산업정책 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부흥정책과 상법 및 제도 개발은 비즈니스 환경개선이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더 넓은 지역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접근유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과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소기업개발의 한 형태이며, 개도국의 투자 환경개선과 투자촉진기능강화, 무역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의 간소화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성 강화는 산업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원금액

OECD (2017)에서 정의내린 PSD 지원 관련 원조목적코드로 일본의 PSD 지원 관련 금액을 분석해 보면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ODA 명목 금액 기준, 약 88%가 JICA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어 대부분이 JICA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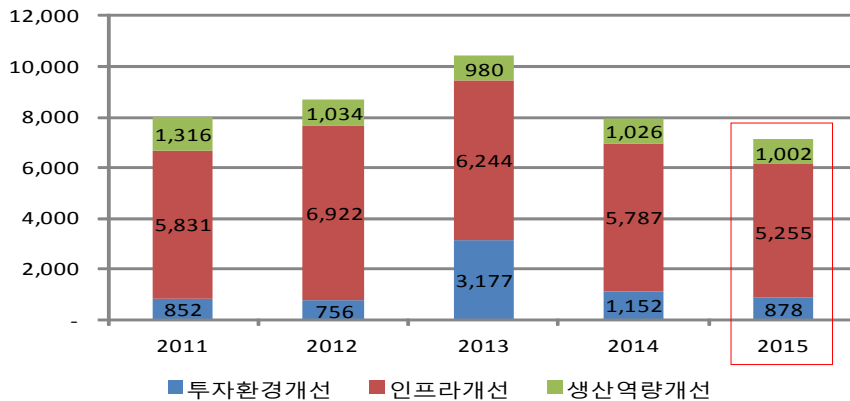
〈그림 15〉 일본 기관별 PSD 지원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그리고 지원영역별로 보면 일본이 인프라에 집중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민간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의 PSD 지원 기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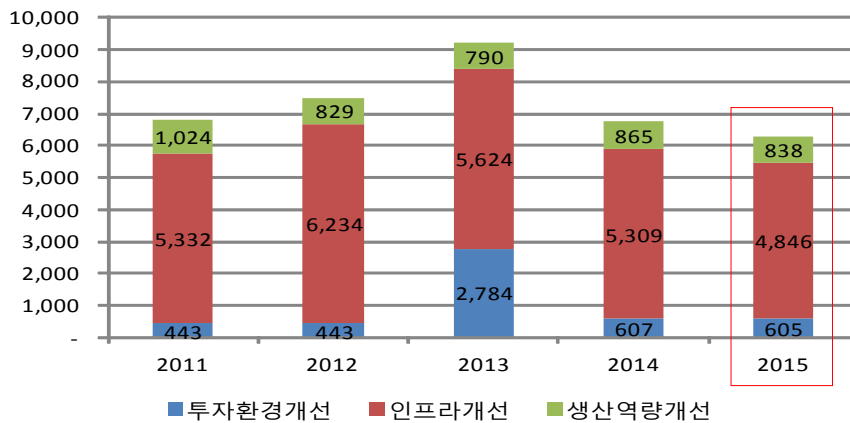
〈그림 16〉 일본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한편, JICA 차원에서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투자 환경, 인프라, 생산역량에 각각 10%, 77%, 13%를 투입하고 있어 역시 인프라에 집중 지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JICA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그러나 사업 건수로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역량 개선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쪽 사업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프라에서는 도로운송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8〉 일본 JICA PSD 자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지원영역	원조목적코드	건수	비율
투자환경 1268건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243	19%
	분권화 및 지방정부	88	7%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71	6%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190	15%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79	6%
	에너지정책 및 행정관리	291	23%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134	11%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146	12%
	기타	26	2%
인프라 1408건	대규모 상수시스템	233	17%
	하천개발	75	5%
	폐기물관리/처리	209	15%
	도로운송	288	20%
	철도운송	83	6%
	수로운송	126	9%
	항공운송	61	4%
	재생가능자원발전소	118	8%
	기타	215	15%
생산역량 1608건	직업훈련	129	8%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60	22%
	농업개발	303	19%
	농지개발	93	6%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99	6%
	어업개발	66	4%
	중소기업개발	319	20%
	기타	239	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17.7.7)

4) 사업 사례

JICA의 PSD 관련 사업리스트를 보면, 기술협력 성격을 가진 인적자원 역량 개발 사업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적자원 역량개발을 통한 기업의 생산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앞서 CRS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인프라 집중 지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리스트가 PSD 관련 기술협력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프라를 지원하는 차관 사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아시아에서 실시되어 일본 경제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PSD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JICA PSD 관련 사업 리스트

번호	국가	프로젝트명	사업기간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일본 협력센터 프로젝트	2009년 4월 ~ 2014년 3월
2	인도네시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개발 프로젝트	2013년 3월 ~ 2016년 2월
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일본 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한 사업가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2013년 4월 ~ 2016년 3월
4	라오스	사바나켓과 사라반 지역의 1촌1제품 시범 프로젝트	2008년 12월 ~ 2011년 12월
5	라오스	라오스-일본 인적자원개발기관을 통한 사업가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2010년 9월 ~ 2014년 8월
6	몽골	몽골-일본 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한 사업가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2012년 1월 ~ 2016년 1월
7	몽골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젝트	2010년 11월 ~ 2013년 5월
8	태국	지역에 통합된 중소기업 촉진 매커니즘 강화 프로젝트	2013년 1월 ~ 2016년 1월
9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일본 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한 사업가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2010년 12월 ~ 2015년 11월
10	베트남	베트남-일본 인적자원협력센터를 통한 사업가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2010년 9월 ~ 2014년 8월
11	엘살바도르	회사 행정, 품질, 생산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	2016년 12월 ~ 2019년 12월
12	팔레스타인	제리코 농업산업공단의 관리 기능 및 인센티브 서비스 강화 프로젝트	2014년 3월 ~ 2017년 3월
13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품질 및 생산성 개선 연구	2009년 10월 ~ 2011년 6월
14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품질 및 생산성 개선을 통한 제조기업 강화 프로젝트	2013년 3월 ~ 2016년 3월
15	잠비아	국가 카이젠(개선) 프로젝트	2014년 2월 ~ 2016년 12월
16	잠비아	잠비아 투자 촉진 프로젝트-희망의 삼각지	2009년 8월 ~ 2012년 8월

출처 : JICA 웹사이트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subject/sector/11_1.html (접속일 : 2017.6.1)

<표 9>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얀마의 딸라와 경제특구 관리 위원회 역량 개발 프로젝트가 JICA가 PSD 관련 대표사업으로 꼽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바탕으로 투자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JICA가 개입하고 있는 상류(upstream) 영역의 무역과 투자 장려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미얀마의 딸라와 경제특구는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환경 허가과 면허를 주고 빌딩 및 투자 허가를 받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외국인 기업들에 의해 인정을 받아왔으며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총 36개의 회사가 투자 허가를 받았고, 그중 11개 회사가 건축을 시작했다. 9개의 정부부처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이 원스탑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허가과 면허 취득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 허가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3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스탑서비스센터는 회사 등록, 비자, 거주 허가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3. 미국/USAID

1) 지원영역

USAID는 PSD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총 12개의 지원 분야 중 경제성장과 무역(Economic Growth and Trade) 분야의 지원 방법으로 PSD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경제성장(Broad-Based Economic Growth)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개발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 원조가 불충분한 분야 및 지역에 신규 투자자 및 민간 자본 모집(downstream)
- 시장 접근성 강화 (midstream)
- 정부의 지출 효율성 제고 (upstream)
- 도로, 다리, 상수도 공급, 전기 등 인프라 개선 (midstream)
-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회사와의 협업 (downstream)
- 지방 자금 조달 채널의 융자 장려 (mid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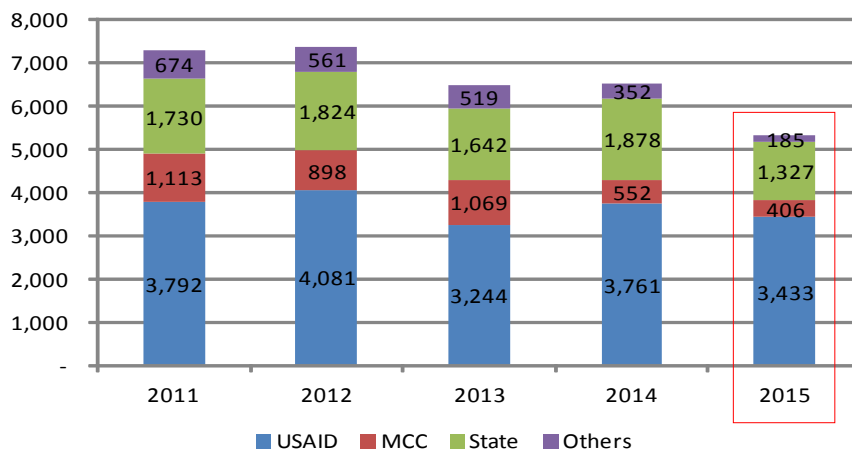
2) 접근유형

USAID의 지원영역과 DCED의 PSD 접근유형으로 매칭해 보면 민간섹터참여,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규 투자자 및 민간 자본 모집,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회사와의 협업 등은 민간섹터참여 접근유형을 적용한 것이다. 시장 접근성 강화, 인프라 개선 및 지방 자금 조달 채널의 융자 장려는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접근유형을 그리고 정부의 지출 효율성 제고는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관련이 있다.

3) 지원금액

미국은 영국과 함께 투자환경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OECD (2017)에서 정의내린 PSD 지원 관련 원조목적코드로 미국의 PSD 지원 관련 금액을 분석해 보면 2015년 ODA 명목 금액 기준, 약 64%가 USAID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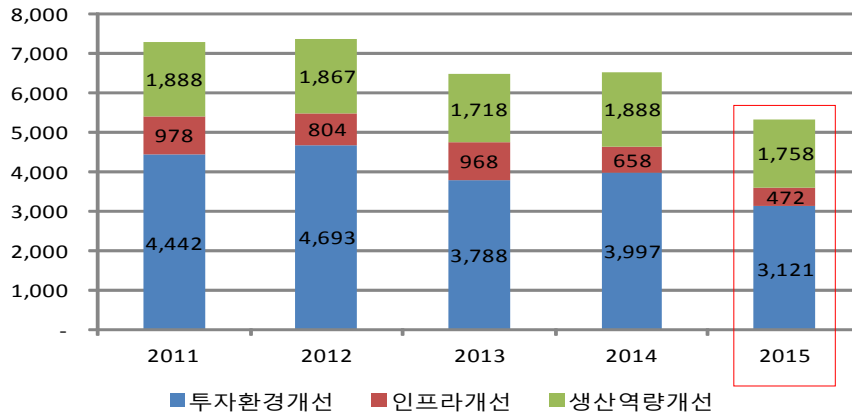
〈그림 18〉 미국 기관별 PSD 자원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그리고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영역별로 보면 미국이 투자환경에 집중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015년 명목금액 기준, 약 58%의 ODA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영역에서 집행되고 있다. 민간부문개발을 위해서 거시적인 환경 및 시스템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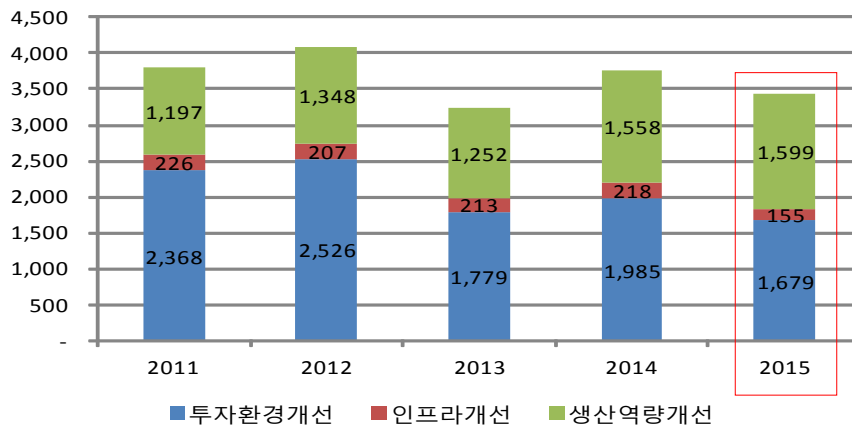
〈그림 19〉 미국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한편, USAID 차원에서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을 <그림 20>에서 살펴보면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에 각각 49%, 5%, 47%를 투입하고 있어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에 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USAID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투자환경에서는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역량에서는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및 농업개발 사업도 상당 수 실시되고 있다.

〈표 10〉 미국 USAID PSD 지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지원영역	원조목적코드	건수	비율
투자환경 1489건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333	22%
	분권화 및 지방정부	220	15%
	부패방지 기구 및 기관	110	7%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190	13%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82	6%
	에너지정책 및 행정관리	164	11%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78	5%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176	12%
	기타	136	9%
인프라 160건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대규모시스템	132	83%
	대규모 상수 시스템	24	15%
	기타	4	3%
생산역량 2253건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502	22%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797	35%
	농업개발	527	23%
	중소기업개발	180	8%
	무역진흥	137	6%
	기타	110	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17.7.7.)

4) 사업 사례

USAID의 PSD 관련 대표적인 사업사례로 세르비아 민간부문개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하였으며 사업기간 4년, 총 7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세르비아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12개시의 민간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은 지역개발을 위한 국가기구(National Agency for Regional Development, NARD)와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이며 성장 기업과 비즈니스 클러스터의 영업 및 수출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수혜기업이 지역 및 지방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현재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 비용을 줄이고,

공급업자 네트워크를 넓히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운영에 있어 수익성과 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하는 정부기구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수출확대 및 자국 내 시장 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4. 한국/KOICA

1) 지원영역

대부분의 KOICA 전략은 국가 또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을 위해서 어떤 영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PSD 지원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PSD 전략을 따로 수립하여 가지고 있지 않으며 PSD 라는 용어에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개도국이 원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KOICA가 비중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중소득국으로 올라선 파트너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KOICA 출구 전략을 위해서도 파트너 국가의 민간부문개발을 적극적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접근유형

비록 PSD 전략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KOICA의 최근 5년간 사업을 살펴보면 PSD를 위해 민간섹터참여,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그리고 소기업개발의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민간섹터참여에서는 CTS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IB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IPS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을 도입하여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고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민간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문 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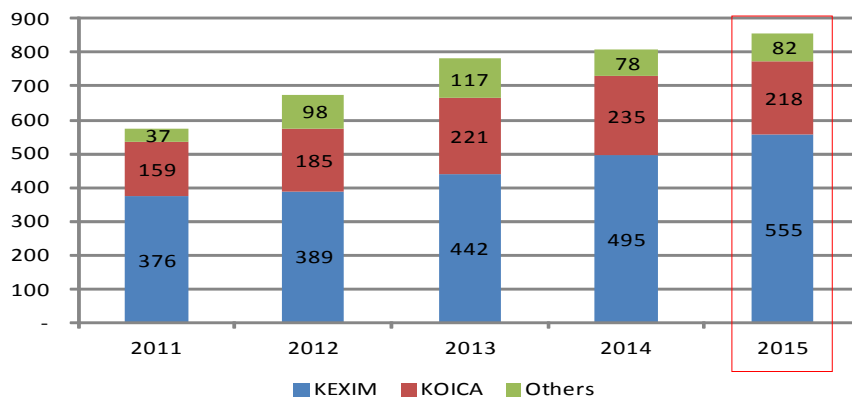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에서는 빈곤층이 공급자,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고용자, 노동자로서 비즈니스 가치사슬 내 다양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송 인프라 개선, 유통확대 및 판매처 개발, 협동조합설립, 가치사슬 개선 등이 이와 관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기업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 주민들의 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마련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과 이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3) 지원금액

OECD (2017)에서 정의내린 PSD 지원 관련 원조목적코드로 한국의 PSD 지원 관련 금액을 분석해 보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ODA 명목 금액 기준, 약 65%가 한국 수출입은행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간부문개발을 위해 인프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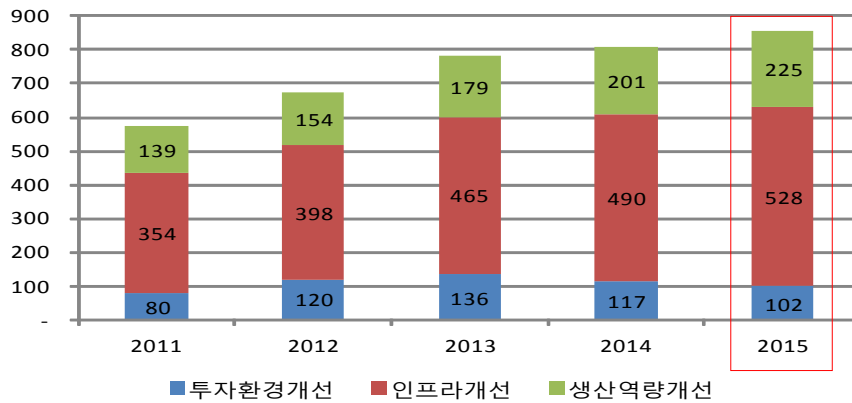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 기관별 PSD 자원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그리고 지원영역별로 보면 한국이 인프라에 집중지원하고 있음 알 수가 있다.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약 62%의 ODA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영역에서 집행되고 있다.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수출입은행이 대부분의 PSD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원영역이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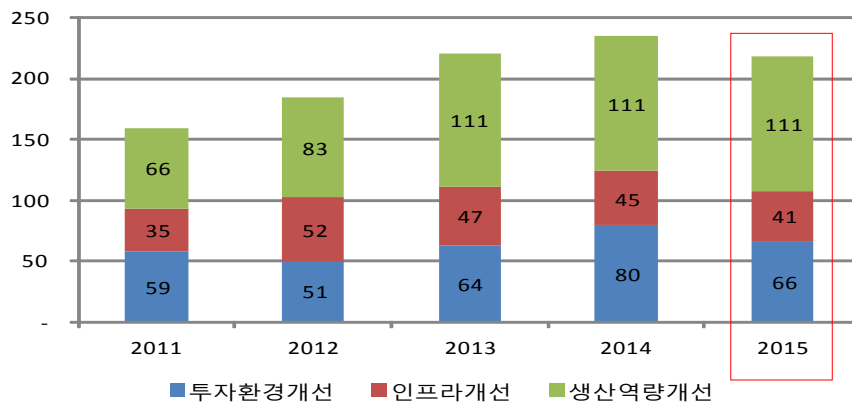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한편, <그림 23>에서 보는 것처럼 KOICA 차원에서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에 각각 30%, 19%, 51%를 투입하고 있어 생산역량 개선에 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KOICA PSD 지원영역별 ODA 금액 2011-20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목기준, 백만 달러, 접속일: 2017.7.7)

타 양자 기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PSD 관련 사업 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뚜렷하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표 11>를 보면 알 수 있다. 생산역량 중에서도 직업훈련 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어 인적 자원 역량 개선이 민간부문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투자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쪽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11〉 한국 KOICA PSD 지원영역별 ODA 사업 건수 2015

지원영역	원조목적코드	건수	비율
투자환경 82건	수자원정책 및 행정관리	8	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45	55%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5	6%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5	6%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6	7%
	기타	13	16%
인프라 51건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대규모시스템	3	6%
	대규모 상수 시스템	3	6%
	폐기물관리/처리	8	16%
	도로운송	6	12%
	항공운송	4	8%
	라디오/TV/미디어	3	6%
	ICT	3	6%
	태양에너지	10	20%
	전력송전 및 배전	4	8%
	기타	7	14%
생산역량 149건	직업훈련	46	31%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9	6%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제도	3	2%
	농업개발	27	18%
	농업용수자원	6	4%
	농업관련 기자재	3	2%
	식량생산	4	3%
	경제작물/수출작물	9	6%
	농업지도	3	2%
	농업관련 교육훈련	8	5%
	농업연구	3	2%
	어업개발	5	3%
	기타	23	15%

출처 : OECD stats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17.7.7)

4) 사업 사례

KOICA PSD 지원 관련 대표 사업 사례로 생산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사업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사후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국가개발계획에 PSD 관련 개발 과제가 포함된 중점협력국, 네팔의 부트왈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3년에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5천만 달러로, 사업의 목표는 네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에 부합한 기술·기능 인력 양성과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교과 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기자재 구비, 교사의 능력 향상 및 유지라는 결과(outcome)를 도출하였다. 사업 시작 당시 네팔은 빈곤층의 소득기회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추진을 국가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의적절한 사업이었으며, 네팔에서 부족한 기술 분야에 특화된 디플로마과정 운영으로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기여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교사들이 자신들이 습득한 기술을 타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기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학생 모집에 있어서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쿼타제를 적용한 결과, 약 50%의 입학생이 취약계층에서 선발되어 네팔의 통합적 발전을 통한 빈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5. 소결

지금까지 KOICA를 비롯한 GIZ, JICA, USAID의 대 개도국 PSD 지원영역 및 접근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중 독일의 GIZ가 가장 잘 갖춰진 틀을 가지고 개도국의 PSD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GIZ의 PSD 지원 목적은 개도국의 민간 비즈니스를 강화함으로써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여 생산적 고용 창출, 수입 창출, 빈곤퇴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PSD 접근유형으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소기업개발, 민간섹터참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초소·소·중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스템적인 접근과 결과 중심, 보완원칙과 수요중심, 그리고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 JICA의 경우는 독일의 GIZ 만큼 짜임새 있는 PSD 지원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의 지원영역과 접근유형을 가지고 있다.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면서 접근유형으로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소기업개발, 산업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USAID는 PSD 지원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성장과 무역 분야의 지원 방법으로 PSD를 활용하며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접근유형으로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간 섹터참여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KOICA 또한 USAID와 마찬가지로 PSD 지원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업을 살펴보면 개도국의 생산역량 개선을 주로 지원하였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소기업개발, 민간섹터참여 접근유형을 사용하여 개도국의 PSD를 지원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KOICA가 PSD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세 공여기관 중 전략의 틀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독일의 GIZ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 기관 모두 공통으로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포용성이라는 SDGs의 3대 기조 중 하나를 반영하는 만큼 추후 PSD 접근유형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시사점

1. KOICA PSD 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1) KOICA의 분야별 전략 2016-2020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KOICA는 PSD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7년 수립된 분야별 중기전략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PSD 지원과 관련된 전략목표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OICA는 총 10개 분야⁴⁾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중에서 보건과 물을 제외한 5개 중점분야인 교육, 공공행정, 농촌개발, 교통, 에너지 분야의 전략목표 일부가 PSD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분야의 전략목표인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과 농촌개발 분야의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는 개도국 기업의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행정 분야의 행정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은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경제산업 발전 지원과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력품질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는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2> KOICA 분야별 전략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분야	전략목표
교육	·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공공행정	·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 정치·행정 체계의 책임성 향상
	·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농촌개발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4) 7개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및 3개 범 분야(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전략목표
	·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존
교통	· 교통접근성 향상 및 경제산업발전 지원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지원
	· 개발자원 마련을 위한 역할 강화
에너지	· 에너지 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력품질 향상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7)

2) 중점협력국의 국가개발계획 내 PSD 관련 개발 과제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 총 24개국⁵⁾으로 변경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 2016-2020을 세우고 각 국가개발계획에 맞는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국가협력전략을 살펴보면 <표 13>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24개 중점협력국 중 13개 국가가 국가개발계획 내에 PSD와 관련된 개발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필리핀이 해당되며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이며 중남미에서는 페루가 해당된다. 특이한 점은 아시아는 중소득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는 저소득국인 최빈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13개국 중 7개 국가가 (50%이상) PSD 관련 개발과제에 생산성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빈국가가 이러한 수요가 더 많은 편이다. 이는 곧 PSD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최빈국의 경우에는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역량 강화를 중점적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베트남, 필리핀, 가나의 개발과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투자환경 조성 및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환경이나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아시아 13개국(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7개국(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중남미 4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중점협력국 국가개발계획 내 PSD 관련 개발과제

지역	국가	국가개발계획 내 PSD 관련 개발과제 및 한국의 중점 지원 분야	소득수준
아시아	네팔	· 관광, 제조업, 무역 부분 개발 · 수력발전 및 기타 에너지원 개발 및 도로건설 · 농업분야 생산성, 다양성, 상업성 개선 (물관리 및 보건위생/교육/지역개발/에너지)	LDC
	베트남	· 시장경제발전 · 경제구조조정(공공행정/교육/물관리 및 보건위생/교통)	LMIC
	스리랑카	· 기술 직훈 강화, 고등교육개선, 여성인력개발을 통한 100만 일자리 창출 · 도로건설, 항만개발 등 교통개선으로 수출증대, 관광산업 발전 등 국제교류 증진 · 농업 및 수산업 현대화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 및 주택 50만호 보급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교육/교통/물관리 및 위생/지역개발)	LMIC
	아제르바이잔	· 생산성/경쟁력 강화 (통신/물관리 및 보건위생/공공행정/지역개발)	UMIC
	파키스탄	· 생산성 개선(교통/에너지/물관리 및 보건위생/지역개발)	LMIC
	필리핀	· 경제정책유지, 조세개혁, 투자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물관리 및 보건위생/교통/재해예방)	LMIC
아프리카	가나	· 민간부문경쟁력강화 · 농업현대화/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 인간개발, 생산성, 고용창출(지역개발/보건/교육/에너지)	LMIC
	르완다	· 생산성 증대 및 청년고용 창출(교육/지역개발/통신ICT)	LDC
	모잠비크	· 생산성/경쟁력 강화(교통/에너지/물관리 및 보건위생/교육)	LDC
	세네갈	· 경제발전프로그램 (지역개발 및 수산업/교육/물관리 및 보건위생/교통)	LDC
	에티오피아	· 농업/제조업 생산성 확대 · 민간부문이 개발의 주체가 되도록 촉진 (물관리 및 보건위생/지역개발/교통/에너지/교육)	LDC
	탄자니아	· 고용창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 (물관리 및 보건위생/교통/교육/에너지)	LDC
중남미	페루	· 운송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강화, 교통체계 연계성/효율성 및 안전제고(물관리 및 보건위생/공공행정/환경보호/교통)	UMIC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6a)

2. 정책 제언

1) PSD 목적, 타겟그룹 및 지역

KOICA의 모든 사업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KOICA의 PSD 지원 목적을 개도국 민간 비즈니스를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경영목표 2017-2021 중 하나인 개도국의 자립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립할 수 있겠다. PSD 지원 대상 타겟 지역 및 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 중 국가개발계획에 PSD 관련 개발과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원영역 및 접근유형

지원영역은 이들 국가들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최빈국의 경우에는 생산역량 강화와 같은 단기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하류에 개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중소득국에는 투자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 사업과 같은 상류와 중간레벨에 개입하는 사업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DCED의 PSD 접근유형으로 보자면 최빈국의 경우에는 민간섹터참여나 소기업개발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산업정책,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지원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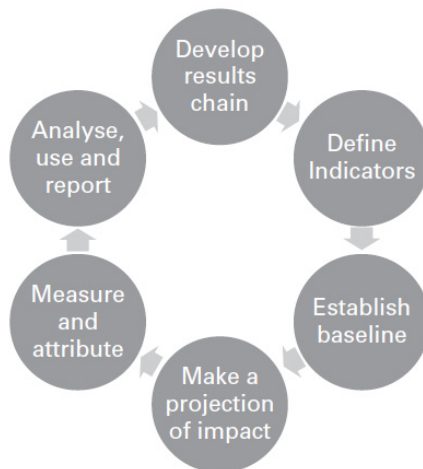
KOICA의 PSD 지원 원칙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가지 PSD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현장중심의 사업수행 강화’ 전략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결과중심의 PSD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증거 기반, 성과 기반의 사업 추진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여, 창출된 일자리, 개선된 소득 및 세수, 시스템적 변화 등 개발결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두 번째 ‘재난, 분쟁, 소외층 효과적 지원’ 전략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여성, 장애인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포용성이 확보된 PSD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이는 SDGs 3대 기조 중 하나인 포용성을 반영한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혁신적 기술기반 우수파트너 발굴’ 전략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지원한 경우에는 외부 재원을 끌어들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KOICA의 지원이 없이도 해당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성과 측정

앞서 제시한 PSD 지원 원칙 중 결과 중심의 PSD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 측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 관리 충실히 이행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결과 체인을 수립하고, 지표를 선정한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베이스 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과에 대한 예측치를 선정한다. 사업이 종료되면 실제 관측치를 조사함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분석한 후 보고하는 일련의 단계를 반드시 수립하도록 한다(DCED, 2016d).

<그림 24> 결과 관리 사이클



출처: DCED (2016d: 7)

(1) 결과 체인의 명확화 (Articulating the Results Chain)

먼저 PSD 지원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결과 체인이 명확화 해야 한다. 결과 체인은 사업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발 효과를 이끌어내는 여러 다른 준위의 변화들을 어떻게 유발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ogframe과의 다른 점은 결과체인은 사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변화를 측정할 지표 확정 (Defining indicators of change)

다음 단계는 앞서 선정한 변화들을 측정할 지표를 확정하는 일이다. 사업 활동이 타겟그룹에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 기간과 예산 내에 측정할 수 있고 명확한 것이라야 한다. 이 지표는 양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질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으며 지속가능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표 14〉 지표 Pool 예시

지표	단위	지표종류
Volume of financial services obtained 제공된 자금 지원 규모	US\$	Impact
Change in Income 소득 변화	US\$	Impact
Change in Amount of Investment Generated 창출된 투자의 규모 변화	US\$	Impact
Energy use avoided or reduced 절약된 에너지 양	MWh/year	Impact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s percentage of GDP GDP내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의 비중	%	Impact
Full-time equivalent female jobs supported as percentage of total fulltime equivalent jobs supported 전체 상근 일자리 대비 여성 상근 일자리 비율	%	Impact
GHG emissions avoided or reduced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metric tons/year	Impact
Hectares of sustainably managed land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토지 면적	# of hectares	Impact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as percentage of GDP GDP내 제품 및 서비스 수입의 비중	%	Impact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jobs supported 상근 일자리 수	#FTE	Impact
Number of newly registered firms 신규 등록 회사 수	# of firms	Impact
Renewable energy produced 재생 에너지 생산량	GWh/year	Impact
Water use avoided or reduced 절약된 물 사용량	cubic meters/year	Impact

지표	단위	지표종류
Number of accounts held by a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 수	# of accounts	Outcome
Number of accounts linked to payment or mobile banking systems 모바일 뱅킹 시스템과 연결된 계좌 수	# of accounts	Outcome
Number of firms or individuals that meet firm-specific, national, or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기업, 국가, 국제 기준의 지속가능성을 만족한 개인이나 기업의 수	# of firms or individuals	Outcome
Number of firms or individuals that meet obtain firm-specific, national, or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기업, 국가, 국제 기준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한 개인이나 기업의 수	# of firms or individuals	Outcome
Number of firms or individuals that utilize 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비즈니스개발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이나 기업의 수	# of firms or individuals	Outcome
Number of firms that provide environmental products or services 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수	# of firms	Outcome
Number of individuals or firms gaining access to a value chain 가치사슬에 접근 가능한 개인이나 기업의 수	# of firms or individuals	Outcome
Number of individuals or firms that obtain financial services 금융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의 수	# of firms or individuals	Outcome
Number of legal reforms implemented 법적 개혁 이행 건수	# of reforms	Outcome
Number of legal reforms implemented that improve resource efficiency and low carbon development 자원 효율성과 저탄소 개발 위해 이행된 법적 개혁 건수	# of reforms	Outcome
Percentage of sales of certified products of total sales 전체 매출 중 보증된 제품의 매출 비중	%	Outcome

출처 : DECD (2016a:9~11)

(3) 지표 변화 측정 (Measuring changes in indicators)

측정할 지표를 확정했다면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 지표의 변화를 측정할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지표 값 계산을 어떻게 할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도구가 무엇인지, 누가 책임지고 측정할 것인지, 언제 변화를 측정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 이행 전에 지표의 시작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베이스라인을 1차 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면 2차 자료 또는 과거 연구나 비슷한 인구학적 구성을 가진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차용할 수 있다.

(4) 사업 활동이 원인이 된 변화 측정 (Estimating attributable changes)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표 값을 측정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변화의 정도 중 얼마만큼이 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가 사업과 관계없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사업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레벨별 변화 여부를 단계적으로 밝아가며 변화 체인과 사업 결과간의 인과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5) 시스템 또는 시장 내 확대된 변화 관측 (Capturing wider changes in the system or market)

개발 사업은 원조의 직접수혜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직접 수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PSD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수혜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측정해야한다.

(6) 프로그램 비용 추적 (Tracking programme costs)

사업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하는데 사용된 연간 또는 누적 비용을 모두 제시하여 이러한 비용이 모두 사업 효과를 올리는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여러 가지 라면 구성요소별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소별로 투입된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7) 결과 보고 (Reporting results)

사업 활동으로 인한 지표 변화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면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사업결과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결과보고의 문서화는 PSD의 확실한 효과를 증명하고 중요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해당 분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 연단위로 사업의 효과를 종합해서 보고 문서를 생산해야 한다.

(8) 결과 측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 (Managing the system for results measurement)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입요소들을 수정해야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관리 시스템에는 사업 형성부터 이행까지 사업관

리의 모든 측면이 반영되어야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감, 적절한 계획, 충분한 기술 및 재정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위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광재성 외.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모델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성규. 2012. “개도국 민간부문 활성화 ODA 방안 : 빈곤층 친화적 시장개발(MM4P) 사업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영호 외. 2015.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소영 외. 2016.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 정지선 &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민경. 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5. “네팔 부트왈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우평가 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6a. “국가협력전략”. (내부문서)
- _____. 2016b.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경영목표”. (내부문서)
- _____. 2017.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국외문헌〉

- Austrian Development Agency. 2013. “Evaluation - Private Sector Development of the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ADA_Evaluation_private_sector_final_report.pdf (접속일: 2017. 4. 13)
- BMZ. 2013. “Sector Strategy on Private Sector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www.bmz.de/en/publications/archiv/type_of_publication/strategies/Strategiepapier338_09_2013.pdf (접속일: 2017. 4. 27)
- CIDA. 2003. “Expanding Opportunities through Private Sector Development: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vailable at <http://publications.gc.ca/>

- collections/Collection/CD4-9-2003E.pdf (접속일: 2017. 4. 17)
- DCED. 2008. "Supporting Business Environment Reforms: Practical Guidance for Development Agencies",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onorGuidanceEnglish.pdf> (접속일: 2017. 4. 19)
 - _____. 2014. "Private Sector Development Synthesis Note: Industrial Policy",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CED_IP_SynthesisNote.pdf (접속일: 2017. 4. 19)
 - _____. 2015a. "Private Sector Development Synthesis Note: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WEESynthesisSept15.pdf> (접속일: 2017. 4. 27)
 - _____. 2015b. "The DCED Standard for Measuring Results in Private Sector Development: Control Point and Compliance Criteria",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CED_Standard_versionVII_Apr15_bluecover.pdf (접속일: 2017. 4. 27)
 - _____. 2016a. "Harmonized Indicators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CEDIndicatorHarmonizationApr16.pdf> (접속일: 2017. 4. 27)
 - _____. 2016b. "Private Sector Development Synthesis Note: Private Sect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Agency Support",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Private-Sector-Adaptation-Synthesis.pdf> (접속일: 2017. 4. 27)
 - _____. 2016c. "Private Sector Development Synthesis Note: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CED_SE_SynthesisNote.pdf (접속일: 2017. 4. 27)
 - _____. 2016d. "The 2016 Reader on Results Measurement",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CED_Reader_March2016.pdf (접속일: 2017. 4. 27)
 - _____. 2017a. "How Donors Can Make the Transition to Strategic Private Sector Engagement: Programming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CED_Making_the_Transition_to_Strategic_Private_Sector_Engagement.pdf (접속일: 2017. 4. 11)

- _____. 2017b. "Private Sector Development Synthesis Note: DCED Member Agency Policies for PSD",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AgencyPSDPolicies_SynthesisNote.pdf (접속일: 2017. 3. 31)
- _____. 2017c. "Private Sector Development Synthesis Note: Employment Creation",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Employment_Creation_Synthesis_Note_31_10.pdf (접속일: 2017. 4. 27)
- _____. 2017d. "Private Sector Development Synthesis Note: Youth Employment",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DCED_YouthEmployment_Synthesis-Note.pdf (접속일: 2017. 4. 27)
- DfID. 2008.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Prosperity for All: making markets work", available at <http://www.dfid.gov.uk/pubs/files/Private-Sector-development-strategy.pdf> (접속일: 2017. 3. 15)
- GTZ. 2008. "Cross-section evaluation of independent evaluation in 2007 in the thematic priority area Private Sector Development(PSD)", available at <https://www.giz.de/de/downloads/gtz2008-en-pwe-cross-section-evaluation.pdf> (접속일: 2017. 6. 8)
- Mastercard Foundation. 2015. "Youth at Work : Building Economic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Africa",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YouthEmploymentMCF2015.pdf> (접속일: 2017. 6. 8)
- OECD. 1995.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Guidelines Series". Paris. OECD
- _____. 2016.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Germany",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peer-reviews/Peer-Learning-Country-Report-Germany.pdf> (접속일: 2017. 6. 1)
- _____. 2017. "Development Cooperation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 Analytical Framework and Measuring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available at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ded2028f-en.pdf?expires=1506665680&id=id&accname=guest&checksum=B8AA3C0E6DA6725AAD0B1AD95CE163D8> (접속일: 2017. 6. 8)
- SDC. 2008. "A Synthesis of the 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M4P) Approach", available at <https://www.eda.admin.ch/content/dam/deza/en/documents/>

- publikationen/Diverses/172765-unesynthesedemarche_EN.pdf (접속일: 2017. 4. 19)
- _____. 2015. "The Operational Guide for the Mar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Approach",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m4pguide2015.pdf> (접속일: 2017. 4. 19)
 - SIDA. 2001. "Approach and Organization of Sida Support to Private Sector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erec/sweden/46163988.pdf> (접속일: 2017. 4. 14)
 - USAID. 2015. "Wage Labor, Agriculture-based Economies, and Pathways out of Poverty", available at http://pdf.usaid.gov/pdf_docs/PA00KDMT.pdf (접속일: 2017. 4. 14)
 - World Bank. 2002.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 Directions for the World Bank Group", available at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611361468314083684/pdf/449330BR0Box321losed0April016020021.pdf> (접속일: 2017. 4. 14)

〈웹사이트〉

- 기업개발을 위한 공여위원회(DCED):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 (접속일 : 2017. 4. 21)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https://www.jica.go.jp/english/> (접속일 : 2017. 6. 1)
- GIZ: <https://www.giz.de/de/html/index.html> (접속일 : 2017. 5. 7)
- OECD Statistics: stats.oecd.org/ (접속일 : 2017. 4. 18)
- USAID: <https://www.usaid.gov/> (접속일 : 2017. 7. 1)

[부록 1] 공어국별 PSD 전략

오스트리아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빈민층을 위한 성장 • 개발 협력을 위한 유럽 민간 부문의 잠재성 강화 • 포괄적인 시장 시스템 개발	PSD에 관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세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1)이용 가능한 환경, 2)사업 개발 서비스, 3) 민간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이다. 다수의 PSD 프로젝트는 빈민층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는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상류, 중간, 하류 단계에서 PSD지원에 관한 것으로 빈민층 사람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기업 확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오스트리아 기관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접근법은 "지역 경제 개발(Local Economic Development)" 로,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지역에서 사업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류(Upstream): • 지역 체제 상태 개선 중간(Midstream): 인프라 확장 • 가치 사슬 개발 • 비즈니스 서비스 및 재정에 대한 접근성 하류(Downstream): • 소규모 자작농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오스트리아 민간 부문 지원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권한	실행 검토 요약	
• 외교부(MFA) • 재정부 • 오스트리아개발기관(ADA) • Oesterreichische Entwicklungsbank (OeEB)	외교부(MFA)는 오스트리아개발협력(ADC)과 기획, 협력하고, 재정부는 국가 또는 다자개발은행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PSD를 포함한 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오스트리아개발기구(ADA)는 제한적인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오스트리아개발협력(ADC)의 부속 운영 기관이다. ADA내, 민간 부문 및 개발 부서가 PSD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OeEB와 협력하여, ADA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오스트리아 및 유럽 기업들에 기술 지원, 중대 서비스, 자금을 제공한다. OeEB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개발금융협회(Development Finance Institute)로서, 전적으로 오스트리아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OeEB는 대출,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상업적인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OeEB는 메저닌 용자, 장기간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차환과 및 투자 펀드 참여를 제공한다. OeEB는 소액금융과 같은 금융 부문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에 중점을 둔다.	오스트리아개발협력 평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PSD 활동 운영에 관한 문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제한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접근법들의 확산과 이로 인한 우수성 제고의 어려움 • 인력 부족, PSD의 비효율적인 조직적 설정 및 기타 다른 조직으로부터 고립으로 인해 효과적인 크로스커팅 지원 방해 • ADA 전반에 걸쳐 PSD 최상의 활동 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 향상 미비 • 오스트리아 ODA 체계 전반에 걸쳐 PSD에 대한 공통의 정책 부재 및 실행 기관들의 서로 다른 방향성 이 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검토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이 있으며, 특히 기관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 포괄적인 성장 • 녹색 성장 PSD 관련 목표 • 빈곤 퇴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 •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지역 민간 부문 지원	PSD에 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전략은 중소기업 을 포함한 지역의 민간 부문 지원에 중점을 둔 다. 이러한 지원은 정부, 사업 중개 조직, 금융기 관 및 중소기업에 주어진다. 이 전략은 인프라에 추가적인 투자를 동원시키기 위해 보조금 사용에 포함한 융합 기관의 이용을 강조한다. 상업 은행 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기업 대출을 활성화 시키 는 보증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역시 구 상중이다. 민간부문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및 인프라 영역에 참여시키도록 권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PSD와 관련 있는 크로스 커팅 분야는 1). 젠더, 2). 청년 실업, 3). 인권이 있다.	상류(Upstream):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및 투자환경 개선 • 정책 형성 및 규제에 대한 금융 고문 서비스 및 최첨단 진단 방법 • 금융 분야에 대한 적절한 금융 인프라 및 규제 제도 구축 • 정책 대화를 통한 RBC 촉진 • PPP 및 다수 이해 당사자 연합 강화 • 기업 중개 및 지원 기관 강화 중간(Midstream): 민간 부문 주도 성장 및 해당 국가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높은 점성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기업 규제 완화 • 섹터 별 지원 서비스 및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연합을 형성 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구축 •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 자본 및 전문성 활용 • 어성, 정소년 및 농촌 인구의 금융적 포괄에 특별한 중점을 두는 포괄적 금융을 진흥하기 위한 금융적 중개의 역량 강화 구축 하류(Downstream): 공식, 비공식 섹터에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기업들의 기업지원 관리 능력, 기술적인 노하우 및 시장 연계성 향상을 위한 기업 지 원 서비스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투자 시장 기반 전략 •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중소기업 기업들에게 대출, 주식 금융, 보증 및 장기 투자 자본 제공 • 기업과 관련 있는 출판 공급자 간의 연합 지원 • 포괄적 기업 및 개발을 위한 시장 기반 해결책 강화를 위한 자본 제공 • 중소기업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위험 자본 제공 증가 • ECO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의 임팩트 금융 장려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관한	
• 유럽위원회, DG DEVCO, C4인간 프래임 및 개발, C4인간 프래임 • 유럽투자은행(터브)	DG DEVCO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개발 이사회(Directorate C)뿐만 아니라 민간 체제 개발, 무역 및 지역 통합 위원회(C4)가 PSD 활동을 담당 한다. 두 이사회는 유럽개발펀드, 개발협력기구 및 유럽공동체 및 파트너십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다. 터브는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비유럽연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융합과 지문을 통해서도 유럽연합개발협력의 시행에 기여한다. PSD는 터브의 우선사항으로, 주로 환경 인프라, 혁신 및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25%만 유로 이상의 대출은 직접적으로 특정 회사에 제공 되 어지는 반면, 소액의 경우 대출한도의 형태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제공되어 진다.	

독일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독일 활동의 목표는 개발 도상국에서의 기업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다. 이는 공식, 비공식적 기업을 포함한다. PSD 전략은 상호보완적인 부문, 예를 들어; 경제 정책, 금융시스템 개발, 직업 훈련, 노동시장 지원, 인프라 및 좋은 정부와 같은 부문과 함께 수행되어 진다.	상류(Upstream): 정치, 법, 행정 환경 개선 •독일 전문가들로부터 공공 부문에 조언 서비스 제공 •공공 부문 역량 강화 (훈련 프로그램, 네트워크) •정책 대화 추진 •자력이 있는 지방 기관에 직접 재정 지원 (대출, 보조금, 정책 기반 대출) •민간, 공공 부문 및 시민 사회 간의 파트너십 및 전략적 연합 추진 •정책 기반 대출 •노동 시장 지원 중간(Midstream):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인프라 구축 •특정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섹터 또는 가치 사슬 설립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 구축과 보다 전문적인 클러스터 지원 •민간 및 공공의 질적 인프라 기반 설립 및 강화 하류(Downstream):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에 자문 서비스 제공 •민간 및 공공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금융 투자 프로젝트 및 투자 자문 제공 •RBC 제공, 회상의 활동 보급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관련		
•경제협력및개발연방정부(BMZ) •GIZ •KW •DEG	BMZ는 전반적인 PSD 체제와 독일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를 개발하고, 일관성 및 협력 진흥, 국가 전략 수립 및 GIZ와 같은 수행 기관과 계약한다. PSD 관련 활동은 개발협력의 시민사회이사회, 교회 및 민간 부문과 함께 이루어진다. •경제 정책 자문을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및 지역 경제 개발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책임감 있는 기업 경영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개발 촉진 및 기업 중개 기관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KW는 개발은행으로서 양허성 차관, 신용대출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KW는 독일 연방 예산으로부터 펀드를 받지만, 또한 민간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PSD에 해당하는 분야에는 물, 에너지, 농촌 개발 및 금융이 있다. 비록 소액금융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과 같은 상업은행에 대한 투자 역시 제공되지만, 수혜자들은 주로 정부 및 공공기업들이다. DEG는 KW의 부속기관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장기간 대출, 메자나 금융, 자기자본, 보증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업 혁신을 모색한다. PSD에서 DEG의 중점분야는 농업비즈니스, 제조 산업, 인프라, 지역재정분야 개발로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일본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포괄적인 성장 •빈곤퇴치 •보디나은 정부 •인간 인보 PSD 관련 목표 •투자 증가 •민간 부문 경쟁력 •협력적인 기업 경영	MOFA의 개발협력 정책의 한 축은 개발도상국과 일본 경제 성장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정책은 무역 및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특히 기업 환경 개선,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야들의 중점 우선 사항은 JICA의 PSD 전략의 주요 문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주된 핵심은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지원, 기업 중개 기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위한 역량 강화 제공이다. JICA는 미시적 경제 안정성, 인프라 개발 및 기본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PSD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내용들은 JICA의 PSD 전략에 속하지 않는다.	상류(Upstream): 기업 환경 개선 및 무역 투자 진흥 •산업 진흥 정책 •기업 규제 및 제도, 기업 경쟁 법, 지적 재산 시스템, 세금 행정 등을 포함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거버넌스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법 및 좋은 거버넌스 개발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 형성 역량 강화 •해외 및 국내 민간 투자 촉진 •정책 대출 프로그램 개발 •관세를 포함한 무역 관련 절차 단순화를 통한 무역 진흥 중간(Midstream): 산업정책 및 지역 경제 개발 지원 •경제 특구 진흥 •지역 산업 집약화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하류(Downstream): 기업가정신 장려, 특히 지역 산업 및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촉진 •기업 생산 관리 및 중소기업과 같은 지역 기업 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의 역량 강화 •노동 관리, 기술, 자본 및 정보 공유의 강화를 위해서 공공-민간 기업 중개 기관을 통한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지원 서비스 강화를 제고하는 기술 지원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권한	
•JICA	JICA는 집행 기관으로서 국제 협력을 위한 우선 사항 정책과 같은 일본의 ODA 정책을 편성한다. JICA내에는, PSD를 핵심 시안으로 다루는 민간 부문 파트너십 및 금융 전담 부서(Private Sector Partnership and Finance Department)가 있다. JICA는 기술 협력(자문, 기술 이전 등), 자본 참여 및 인화 대출을 정부, 기업 지원 기관 및 기업에 제공한다.	

네덜란드			
PSD 전략			
목적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 지속 가능한, 포괄적인 성장 • 극빈 퇴치 • 해외 네덜란드 기업의 성공 보장 PSD 관련 목표 • 무역 및 투자 장려	네덜란드의 PSD 전략은 중저소득 국가들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 기여에 중점을 두며, 네덜란드 기업들의 이 국가들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을 장려한다. 이 전략은 개발도상국을 원조 수혜 상태에서 무역 파트너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경을 넘어 해외 투자 및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국가를 글로벌 공급망 안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전략은 적절한 기업 환경, 중소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향상된 접근성 및 인프라와 같은 투자환경 개선을 중요시 한다.	상류(Upstream): • 기업 환경 및 투자 정책 개선 중간(Midstream): • 생산 및 무역 체인 개발에 장애물 제거 하류(Downstream): 기업가정신 장려 • 인프라 펀드를 통한 인프라 접근성 확장 • 기업 또는 연구기관 간 지식 전수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국제 수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수출 및 해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찾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들에 대한 소규모 대출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권한	실행 검토 요약	
• 외교부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부(지역 부처와 협력) • 경제부의 네덜란드 기업 (RVO) • 네덜란드 개발 금융 기업 (FMO)	외교부의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부(DDE)는 지역 부처와 협력하여 PSD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DDE는 주요 PSD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RVO와 FMO를 포함한 기타 기관들에 특정 운영 활동을 위탁한다. DDE와 대외기관은 PSD 정책 집행을 감독하지만, 이 같은 협력은 실제로는 제한적이다. RVO는 경제부 산하의 네덜란드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기업 및 지역 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한다. RVO는 기업을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보조금, 기술 지원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RVO에서 관리하는 시안은 다음을 포함 한다: • Dutch Good Growth Fund: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지원 • DRIVE: 기업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 MMF: 개발도상국의 기업가들과 네덜란드의 기업가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매칭 에이징 기관 CBI: 수출 자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진흥 FMO는 네덜란드 개발은행으로 PSD를 위한 개발협력에 중점을 둔다. 네덜란드 정부가 51%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이고 나머지는 주로 네덜란드 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FMO는 금융 서비스, 에너지 및 농업비즈니스에 중점을 둔다. 고객들은 민간 기업 또는 투자 펀드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다. 대출, 보증, 매지닌 금융 및 자기자본을 제공한다. FMO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MASSIF: 금융 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중소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공 • Access to Energy Fund(AEF):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장을 활성화하는 민간 부문 프로젝트 지원	2014년 PSD를 위한 네덜란드 개발협력 독립 평가(OB 2014)에 따르면, PSD 정책은 관계 부처의 낮은 참여와 함께 매우 독립적인 기관들에 의해 집행되어져 왔고, 그 결과 다수의 특화된 개별 기구들이 되었다. 이 문제는 PSD에 대한 한정적인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PSD 기관 및 대사관의 제한적인 협력과 결합된다. 2007-2011년 기간 동안 수행된 PSD 활동의 일관성 부족에 관한 초창기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집행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수해국의 수를 줄였다. 그러나 2014년 평가에 따르는 결과는 제한적이다.	

노르웨이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목표	노르웨이 개발 정책은 민주화와 인권 실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일지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PSD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PSD를 진흥함에 있어, 정부는 민간 부문 및 지식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특히 노르웨이가 상대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강조한다. 에너지, ICT, 농업, 수산 자원, 해양 분야가 우선적으로 여겨진다.	상류(Upsream): 기업 환경 개선 과 무역 진흥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좋은 정부, 올바른 기능의 세금 시스템, 무역 협약 개선 •국제 수준에서의 개발도상국의 기회 확대 •공공기관 정책 강화 촉진 중간(Midstream): 인프라 확장 •직접적인 재정 지원 (론, 주식, 보조금, 보증) 하류(Downstream): 기업가정신 장려, 특히 스타트업 수 증가 •파트너십, 기업 협력 •훈련 제공 및 지식, 기술 전수	
•민주화			
•인권			
•빈곤 퇴치			
PSD 관련 목표	노르웨이는 3 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민간 부문 단계, 국가 단계, 세계-지역적인 단계에서는 무역, 기후 협약, 규범 및 규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국가 단계에서는, PSD가 투자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주로 인프라, 기술, 기업 규제, 투자 정책, 세금 정책, 행정, 부패 및 인적 자원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민간 부문 단계에서의 목표는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훈련,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여 그 결과 고용을 증가하고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것이다.		
•민간 부문 주도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권한		
•외교부(MoFA)	외교부(MoFA)는 PSD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대사관을 통해 특정 PSD 수행에 착수하며 원조기관(NORAD)과 개발재정기관(Norfund)를 통해 PSD관련 활동들을 감독한다. NORAD는 외교부 산하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부서이다. NORAD내, 개발 경제, 여성, 거버넌스 담당 부의 PSD 부문이 무상원조 조 관찰, 부의 창출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조인 제공, 에너지 접근성 강화 및 개발도상국의 무역 진흥에 기여한다. 활동 예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민간 부문 Norfund는 외교부가 운영하며 제한적인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상업적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PSD에 기여하고 있다. Norfund는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부문과 신생된 국가의 기업들에 주식이나 기타 위험 자본 및 론은 제공한다.		
•노르웨이협력기관(NORAD)			
•노르웨이개발도상국투자펀드(Norfund)			

스웨덴			
PSD 전략		분야 및 방법	
목표	설명	상류(Upstream): 미시적 경제 안정성, 기업 환경 개선, 특히 기술 지원과 역량강화를 통한 무역 진흥 •국제 규제 개혁 •무역 정책, 기술 규제 및 무역 관련 규범 •체제 및 감독 역량 구축 •고용 및 노동 시장 •무역 협상 참여 •고용 정책 및 계획, 노동법 및 노동조합의 체제적 역량 강화 •공공-민간 담합 촉진 •중간(Midstream): 인프라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역 자본 시장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가치 사슬 개발 •기업 중개 기관 강화 하류(Downstream): 기업이 정신 지원 및 기업 개발 서비스 제공 •소액금융에 대한 직접 지원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접근성 •중소기업 및 비공식 기업에 대한 기술 원조 강화를 포함한 기업 지원	
개발 목표 •빈곤층 권한 신장 •포괄적인 성장 PSD 관련 목표 •시장 및 기업가정신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강화	경제 성장에 관한 최근 스웨덴 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핵심 분야는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빈곤층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SIDA는 시장 개발 정책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이는 1) PSD, 2) 무역 정책 및 규제, 3) 금융 체계 개발, 4) 고용 및 노동 시장으로 구성된다. PSD는 엄밀히 말하자면, 시장개발 전략의 구성 요소이지만, 시장개발전략은 SIDA의 PSD 활동을 위한 주요 체제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 시장 개발 전략에는 세 가지 단계의 지원이 있다: 국제 및 지역; 국가 정책 및 기관; 시장 및 시장 참여자; 글로벌 및 지역의 상태는 무역 계약, 지역 통합 등과 관련 있다. 국가 정책 및 무역 제도는 미시 경제적 안정성,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인적 자원 및 기타 등에 대한 개발을 포함한다. 시장 및 시장 참여자는 대, 중, 소, 및 비공식 기업을 망라한다.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제한			
기관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부서(UD IU)는 PSD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원조 정책 체제 설정의 책임을 가진다. 또한 SIDA와 Swedfund International AB를 통해 이러한 체제의 집행을 감독한다. SIDA는 PSD 관련 사항을 포함해 스웨덴 원조 정책의 주요 집행 기관이다. SIDA는 시장 개발 정책의 체제하에서 PSD 관련 활동을 진행한다. SIDA의 PSD 관련 분야는 반대하며, 그 중에서도 기술 협력, 무상 원조, 개발 대출, 공공-민간 개발 파트너십 및 챌린지 펀드를 포함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기업 챌린지 펀드(the African Enterprise Challenge Fund), 개발기관하브의 비즈니스(Business in Development Facility Hub), 변화의 동력 프로그램(Driver of Change program), 빈곤 퇴치 혁신 프로그램(Innovation Against Poverty Program),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웨덴 리더십(Swedish Lead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스웨덴 섬유 물 계획(Sweden Textile Water Initiative). Swedfund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운영 되는 금융 기업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금융 기관 과 기업, 특히 농업비즈니스, 제조업, 인프라 및 중소기업 재정 분야에 기업에 위험 자본, 자기 자본, 대출 및 투자를 위한 전문 자금을 제공한다. 2015년 이후, Swedfund는 재정부로부터 기관의 소유 권을 이전받은 스웨덴 기업 및 혁신 부처(the Swedish 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개발 정책 집행의 감독에 관한 책임을 계속하고 있다.		
•외교부(MoFA) •SIDA •Swedfund	PSD에 대한 개발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 프로그램은 두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SIDA와 외교부 간의 협력 부족과 SIDA와 Swedfund 간의 협력 부족 첫 번째 문제는 역할을 배분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원칙적으로 외교부는 다자원조의 핵심 지원을 다루고, SIDA는 PSD에 관한 모든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평가에 따르면, 이는 PSD에 관한 SIDA의 개발협력을 상당히 강화시켰으며, 특히 기업 환경 개혁 분야가 강화되었다.		

영국			
PSD 전략		분야 및 방법	
목표	설명	상류(Upstream): 미시 경제적 안정성, 기업 환경 및 투자 정책 개선	
개발 목표	DFID는 민간 부문을 경제성장, 빈곤 퇴치를 위한 핵심 수단 및 보건,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본다. 민간 부문 중심 성장은 DFID의 경제 개발 전략 체계의 핵심 사항이며, 장기간, 단기간 빈곤 퇴치를 위한 장기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경제 개발 전략 체계는 민간 투자와 수출 성장을 장려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자유 공정 시장; 긴 전한 미시적 경제 관리; 인프라;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정책 및 규제; 적절한 무역 정책 보장 자산 권리; 기능적 상업 법장;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빈민층 대상 포함); 기업 자원 향상(특히 중소기업 대상)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DFID의 PSD 활동은 무역 정책 및 규제 개혁, 시장 시스템의 중위 개발 및 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규모 지원을 포함한다.	•특히 취약 국가에서의 해외 및 국내 민간 투자 진출 •재산권과 같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민간 영역이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공공-민간 대화	
PSD 관련 목표		중간(Midstream):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기회 증가	
•부 창출		•특히 빈곤층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확장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성장		빈곤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장	
•민간 부문의 기본 서비스 제공 역량 구축		하류(Downstream): 민간 부문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며 기업 자원 촉진 •기업 자원 및 기술, 기업 인가, 보건, 교육, 개인 훈련과 같은 분야에 투자와 직접 지원 제공 •투자 유동을 위한 직접 금융 지원	
기관	권한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DFID •CDC	영국의 PSD 정책과 활동은 DFID에서 설계, 집행, 감독된다. DFID의 경제개발부서내의, 성장탄력성부서(Growth and Resilience Department)는 기업 환경 개혁, 재정 부문 개발 활동 등과 같은 이용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한 PSD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민간부문부서(Private Sector Department)는 CDC와 영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 하는 DF 및 민간 인프라 개발 그룹(PIDG)과 DFID의 관계 관리와 같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의 책임을 가진다. 기타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지역 부서(African Regional Department)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 기업 챌린지 펀드(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와 같은 부서들에서 관리한다. CDC는 자기 자본, 부채, 메자닌 금융 및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 할뿐만 아니라, 기타 펀드 매니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투자한다. 주로 제조업,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금융 기관, 건설, 보건 및 교육에 투자한다.	실행 검토 요약 원조 영향을 위한 독립 위원회(ICA)의 DFID PSD 활동 보고서에서는, 비록 몇몇 부서를 간의 PSD 활동의 통합이 DFID의 민간 부문 활동의 주류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리 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비록 DFID의 PSD 목표가 야심치긴 했지만, 그 목표들은 언제나 일관적이고, 현실적이며 적절하게 균형 잡힌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왔다고 말한다. ICA가 검토한 많은 PSD 사업은 빈곤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더 나은 성과의 프로젝트들은 미시적 수준의 개입이었고, 거시적 혹은 중간적 수준의 개입은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 보고서는 DFID가 다른 수혜국들 간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좋은 행동에 의한 학습을 보여주었지만, 민간 영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목표 •미국 안보 및 번영 추구 •빈곤 감소 및 퇴치 •경제 성장 •재양 완화 •거버넌스 향상 PSD 관련 목표 •민간 부문 주도 성장 및 무역 •포괄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USAID의 경제성장 및 무역 진흥을 위한 전략은 기업 기회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서 민간 영역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은 기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업이 정신, 특히 지역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또한 특히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교육과 경제 성장간의 시너지 창출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전략은 DCA, US-EXIM과 OPIC을 통한 신용 강화와 같은 민간 부문 투자 및 참여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상류(Upstream): 기업 환경 및 투자 정책 개선, 정책 수단과 무역 촉진 •기업 운영비용 감소 •교육과 성장 간의 시너지에 관한 정책 강화 촉진 •무역 역량 강화 중간(Midstream): 높은 성장 잠재성을 가진 소수의 국가들의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진흥(PFG, 5개년 다수 기관 프로그램) 하류(Downstream): 기업가정신 고취,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강화 •독해 및 기타 능력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역량강화 •빈곤층 인권 신장을 위한 소규모 기업에 소액 대출 및 자금 제공(특히 여성 및 농촌지역 거주인) •신용 보증 및 보험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관한	
•국무부 •USAID •밀레니엄 Challenge (Millennium Corporation) •OPIC	협력	USAID에서는, PSD 관련 활동들이 주로 기업 기회와 개발 우선사항이 교차하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을 하는 민간 자본 및 소규모기업 부서(PCM)에서 관리 된다. 게다가, 개발은행 당국은 위험 부담이 큰 취약 부문에 빌려주기 위해서, 대출 보증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의 지역 금융기관을 장려한다. 물, 에너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문들의 예시이다. OPIC은 대출, 보증, 정치 위험 보험, 투자 펀드 지원과 같은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이 모든 상품들은 미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돕는다. OPIC의 활동 대다수는 PSD와 관련이 있는, 에너지, 임팩트 투자, 소규모 기업 지원 및 금융 부문 개발 부문이다. 밀레니엄 챌린지 협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 퇴치를 이루고, 국가 주도 해결책 펀드를 위한 성과 중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2004년 설립된 해외원조기관이다. PSD 관련 분야는 농업개발, 중소기업개발, 인프라 및 금융 부문 개발이다.	

아프리카 개발 은행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 포괄적인 성장 • 녹색 성장 PSD 관련 목표 • 민간 부문 경쟁력 • 민간 부문 주도 성장 및 빈곤 퇴치	AIDB는 PSD를 포괄적인 빈곤 퇴치를 위한 동력으로 여기며, 이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에 대한 기여 때문이다. AIDB의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을 구성하며, 이는 아프리카에 생산적인 고용을 창출할 일자리 환경을 만든다. 이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1). 아프리카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 2).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확장 3). 기업 자원 촉진 PSD는 다섯 가지 우선 활동 사항중 하나로, 다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 • 인프라 개발 • 지역 통합 • 거버넌스 및 책임성 • 기량 및 기술(가치 사슬 연계성 및 클러스터 개발)	상류(Upstream): 이용 가능한 정책, 임원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지원 • 공공 부문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프로젝트 대출 및 보조금 • 원조국 협력 • 정책 대화 촉진 • 자문 중간(Midstream): 특히 교통과 에너지 분야와 같은 인프라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 •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프로젝트 대출 및 보조금 • 원조국 협력 • 정책 대화 촉진 • 자문 하류(Downstream): 기술 부족, 금융 접근성, 규모 부족을 포함한 기업 단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직접 금융 지원(장기간 부채, 주식, 보증, 대출 신디케이션 및 보험) • 자문 • 민간 부문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권한	실행 검토 요약
• 민간 부문 운영(PSO)부 • 거버넌스 및 재정 관리부 • 인프라 담당부 • 지역 통합 및 무역부 • 농업 및 농업 산업부 • 금융 부문 개발부	PSD의 주제 관련에 관한 운영(예: 공공 거버넌스, 인프라, 무역, 농업 등)은 다수의 부처에 걸쳐 진행된다. 민간 부문 운영은 PSO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 프로젝트 확인, 준비, 평가, 집행 및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비록 민간 부문을 직접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PSO 부서는 특정 PSD 분야의 이용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섹터별 부서와 협력한다. 민간 부문 관련 수단에 관해서, AIDB의 PSO부는 다음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및 민영화에 포함한 민간 부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대출, 주식 참여, 보증 및 기술 지원	최신 AIDB PSD 전략에 따르면(AIDB 2013b), 이전 PSD 전략은 다음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PSD에 대한 불분명한 협력 우선 사항 • 기관 이슈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 PSD를 국가 및 섹터 전략과 함께 주류화 시킬 필요성 • 정부 또는 비정부 운영 간 불충분한 협력 몇몇 부서에 걸친 PSD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DB는 기관 내의 여러 부서들 간의 PSD 전략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민간부문개발 추진 위원회(PSDSC)를 형성할 것을 추구한다.

아시아 개발 은행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빈곤 퇴치 •포괄적인 성장 •녹색 성장 •지역 통합 PSD 관련 목표 •민간 부문 주도 성장	민간부문개발 전략에 있어 AsDB 주된 목표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2008년 장기 전략 체제에서는, 2020년까지 총 AsDB 활동의 50% 달성을 목표로 할 정도로 민간 부문 활동 확장을 구성한다. 생산 여력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는 채로, 전적으로 투자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장 중심 성장을 위해서, AsDB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 규제 및 민간 부문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정책과 같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정부에 조언을 한다. AsDB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은 직접 금융, 신용 강화, 위험 완화 보증 및 혁신적이고 새로운 금융 기관을 포함한 다. 이 같은 수단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특정 분야 및 거리에 기업 관리 또는 기술 전문성을 배치하는데 주어진다. 인프라, 지역 협력, 금융 개발 및 교육은 주로 크로스 컷팅 중점분야로 PSD내에서 또는 별개로 다루어진다.	상류(Upstream): 기업 환경 개선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공공 부문 자문 및 투자 정책 진흥 •공공 민간 파트너십 및 민간 부문 참여 촉진 중간(Midstream):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인프라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인프라 투자 •재정 금융 기관 및 서비스 개발 지원 •투자 촉진, 위험 완화 재정 및 인프라의 신용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재정 수단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권한	실행 검토 요약	
•민간 부문 운영부(PSOD) •공공-민간 파트너십 오피스(OPPP) •지역 운영 부처에 걸쳐 몇몇 팀에 분산; 공공경영, 금융부문 및 무역, 기타 인프라 개발 관련 팀	AsDB는 비양허성 민간 영역 재정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역 프로그램의 PSD 활동을 수행한다. 자주적 PSD 관련 활동은 지역 부처내의 주제별 팀에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경영, 금융 부문 및 무역 및 기타 인프라 개발 관련 팀에 퍼져있다. 이러한 팀들에서 주어지는 지원은 기술 협력, 보조금, 정책 및 프로젝트 대출을 포함하며, 특히 재정과 경제 관리 및 재정 부문 개혁과 관련된 활동들이 포함된다. 게다가, OPPP는 인프라 분야의 PPP 사업의 설계 및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거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sDB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협력하고 지원한다. 반대로, 민간 부문 활동은 PSD내에 집중되어 있다. PSD는 다양한 범위의 산업 분야에 걸쳐, 특히 인프라 분야에 있어 민간 기업 및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투자를 구조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활동들은 기술 지원, 민간 부문 거래 재정, 주식 투자 및 보증 또는 대출을 통한 자본 유통을 포함한다.	PSD의 이용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한 AsDB 활동의 2013년 독립 평가에 따르면 PSD을 위한 내부 협력 및 지원 체계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섹터와 PSD 목표 및 체계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활동들 간의 연계성 때문으로, PSD 활동의 주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평가에 따르면, 비록 2006 PSD 체계는 상호적으로 보강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환경과 민간 부문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분야 외에 제한적인 연계성이 있을 뿐이다.	

미주 개발 은행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빈곤 퇴치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PSD 관련 목표 •민간 부문을 통한 개발 강화	IADB의 PSD 전략은 정부 보증과 함께 대출 및 보조금 제공을 포함 한다; 1) 민간 부문 회사에 직접 혜택 제공(예. 멀티 섹터 신용, 매칭 보조금, 기업 개발 서비스); 2) 기술 지원 제공; 3) 민간 부문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기관 또는 행정 개혁 지원 PSD의 예시는 정부 보증 프로젝트로 1) 기관의 질 개선 및 사업 환경 및 투자 잠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및 규제 개선; 2) 재정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권자 관리 및 재산권 개선; 3) 글로벌 멀티 섹터 신용 및 재정 부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장을 위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장기간 펀딩 제공; 4) 지역의 생산성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시설 지원 제공이 있다. 기타 PSD로 간주 되지 않는 민간 부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보증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공공 교육 및 보건 사업, 경제 연구, 식량 안보 및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이 전략은 생산성 향상에 큰 중점을 둔다.	상류(Upstream): 기술 지원, 자문 서비스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이용 가능한 환경 •세금 제도 최적화 및 재산권과 법적 제도 정비 •절차 완화 및 사업비용 경감 •중소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 현대화 •PPP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개선 •시설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무역 원활화 지원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여자들 간 정책 대화 추진 •비공식성 감소 중간(Midstream): 경쟁력과 통합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금융과 투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부와 기업의 위험 변동성 인화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기반 •지방 및 지역 자문 서비스의 개발 진흥 •신 재정 서비스 개발 지원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생산적인 통합 촉진 •사업 개발 서비스 하류(Midstream): 지식 전수와 혁신 역량 강화 및 생산성을 위한 인적 자본 구축 •소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및 소규모 대출이 이용 불가능할 때, 직접 재정 지원 •기술 개발 훈련 및 관리 역량 강화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관련	실행 검토 요약
•섹터별 부서 (예.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관, 통합 및 무역 부문) •지역부 •미주투자협력	지역부 및 섹터별 부서-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관, 통합 및 무역 부문, 기업개발; 기업 환경 개선; 시장 개발 및 통합된 지방 경제 개발과 같은 분야에 정부 대출, 기술 협력을 포함한다. 2015년 이후, 민간 영역 활동은 미주개발투자협력으로 통합되었으며, 미주개발투자협력은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민간 기업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는 신사업 투자, 확장 및 개선, 구조조정, 민영화, 재융자, 운영자본 및 기타 등을 위해서 일련의 완전한 민간 부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부 및 섹터별 부서-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관, 통합 및 무역 부문, 기업개발; 기업 환경 개선; 시장 개발 및 통합된 지방 경제 개발과 같은 분야에 정부 대출, 기술 협력을 포함한다. 2015년 이후, 민간 영역 활동은 미주개발투자협력으로 통합되었으며, 미주개발투자협력은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민간 기업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는 신사업 투자, 확장 및 개선, 구조조정, 민영화, 재융자, 운영자본 및 기타 등을 위해서 일련의 완전한 민간 부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은행 그룹			
PSD 전략			
목표	설명	분야 및 방법	
개발 목표 •빈곤 퇴치 •포괄적인 성장 PSD 관련 목표 •민간 부문 경쟁력 •민간 주도 성장	WBG의 PSD 전략은 기관들 사이에서 다른 단계로 설명된다. 포괄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의 개발은 빈곤 퇴치 및 번영 추구의 동력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는 투자환경 개선 및 취약 국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생산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대출과 프로젝트 단계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인프라, 농업, 제조업 및 관광에 대한 기업 투자는 IFC에서 추진된다. IFC는 또한 공공 부문 개척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는 주된 중점분야는 아니다.	상류(Upstream): 기업 환경 및 투자 정책 개선, 무역 및 투자 진흥 •기업 규제 개혁 •기업 세금 조류화 •투자 규제 및 절차 완화 •투자자 보호 강화 •비관세 수단 조류화를 위한 역량 강화 •빈곤 및 무역 정책 노동 영향 문제 해결 •농업비즈니스, 제조업, 관광 등에서의 성장 강화 중간(Midstream): 민간 자원 이용 및 경제 다양화 추진을 통해 인프라 개발 강화 •무역 연결, 공급망 및 유통 강화 •경쟁 지향 분야 정책 촉진 및 독점 금지 규정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 극대화, 클러스터 및 앵커 투자자의 연계성 강화 •핵심 인프라 구조 또는 투자 •사업 배양기, 가속기, 초창기 펀딩 및 자문 지원 하류(Midstream): 기업가정신 지원, 농업, 제조업 및 관광 분야에서 기업 단계의 중소기업 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혁신 및 생산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세계 은행 독립 평가 그룹의 2013년 평가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IFC가 투자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두 기관의 협력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기관이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이 성공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협력은 전략 레벨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PSD 활동에 관한 기관의 협약			
기관	관련	실행 검토 요약	
•세계은행 •IFC •MIGA	WBG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문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정책 기반 재정지원, 투자 프로젝트 재정지원, 결과를 위한 프로그램, 수혜국 수행 보조금 및 다양한 보증 방법이 있다. WBG내에서, 세계은행은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재정 지원 및 경쟁력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 투자에 공공 인프라, 농업 등을 통해 정부에 IBRD 및 IDA의 대출과 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반면, IFC와 MIGA는 주로 민간 기업 부채와 보증을 각각 제공한다. 2014년 기관 개혁 이후, 활동 및 기타 PSD 활동 관련 모든 투자환경은 신무역 및 경쟁 관행(TCP)에 합병 되었으며, 이는 무역, 투자환경, 부문 경쟁력, 혁신 및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근무하는 5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월드뱅크-IFC-MIGA의 연합이다. 이 직원들은 이스탄불, 싱가포르, 비엔나를 포함한 80개 이상의 사무소에 배치된다. TCP 활동은 취약 분쟁국, 지역 통합 및 핵심 PSD 분야(예, 인프라, 농업비즈니스, 채광 등)에서 민간 부문과의 직접 참여와 같은 WBG의 공유된 우선 사항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 OECD (2017)

[부록 2] DCED 표준 점수표

1. 결과 체인의 명확화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1.1 (필수)	적절하고, 충분히 자세히 면서 논리적인 결과 체인이 각각의 개입에서 분명하게 명확화 된다.	결과 체인이 각 개입을 위해 개발되고 문서화된다. 각 결과 체인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핵심 변화를 보여주며, 기금적 선택된 개입이 어떻게 개발 목표 성취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각 결과 체인은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어, 모든 단계에서 변화는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1.2 (필수)	각 결과 체인은 적절한 연구 및 분석에 의해 뒷받침 된다.	프로그램은 결과 체인의 논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부 예측을 문서화 하였다. 프로그램은 결과 체인의 논리적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문서화 하였다. 문서는 각 결과 체인에 서술된 변화가 어떻게 지속적인 영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1.3 (필수)	중금/고금 수준의 프로그램 인력은 결과 체인에 익숙하고, 결과 체인을 자신들의 활동을 안내 하는데 사용 한다; 핵심 파트너는 개입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중금/고금 수준의 프로그램 인력은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각각의 결과 체인을 설명할 수 있다. 중금/고금 수준의 프로그램 인력은 본인들의 업무를 이끄는 데 어떻게 결과 체인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1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핵심 파트너는 결과 체인에 반영된 개입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1.4 (필수)	결과 체인은 프로그램 전략, 외부 참여자 및 프로그램 상황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진다.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일 년에 한번 결과 체인을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 사용: 프로그램은 적년 최소한 한번 검토된 결과 체인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1.5 (선택)	결과 체인 또는 또 다른 방법은 보다 확대된 체계 변화가 예상되어 지는 것과, 어떻게 프로그램이 그 변화들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것을 설명한다.	결과 체인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은 보다 확대된 체계 변화가 예상되어 지는 것과 어떻게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것을 설명한다.	
1.6 (선택)	결과 체인을 지지 하는 연구 및 분석은 이동(displacement)의 위험성을 참작한다.	프로그램은 이동이 결과 체인의 개발에 고려되어졌다는 증거를 언급 또는 제시한다.	

2. 변화를 측정할 지표 확정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2.1 (필수)	결과 체인에 설명 되는 각 변화와 결부된 최소한 한 개의 관련 있는 지표가 있다.	양적 그리고/또는 질적 지표가 결과 체인의 각 변화를 위해 정의되어 진다. 지표는 결과 체인에서 결부된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2.2 (필수)	수집 될 정보는 결과 체인의 다양한 단계에서 변화에 관한 질적 정보를 포함한다.	변화의 평가는 질적 정보를 포함한다. 질적 정보는, 결과 체인의 다양한 단계에서, 왜 변화가 발생 하거나/하지 않는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 변화의 특성과 깊이 및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2.3 (필수)	영향 단계에서 적은 수의 지표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합쳐질 수 있다.	각각 결과 체인은 가장 근접하게 실현 가능한 단계에서, 공통 영향 지표 또는 대체적으로 합쳐질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를 포함한다. 만약 어떤 결과 체인이 이러한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왜 아닌지를 설명하는 타당한 이유가 서면으로 제시된다.	
2.4 (필수)	성과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정한 지표가 있다.	결과 체인에서 성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지표(양적 그리고/또는 질적)가 정의 된다. 지표는 결과 체인의 핵심 단계에서 성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에 관련되고 적절하다.	
2.5 (필수)	중급/고급 단계 프로그램 인력은 지표와 어떻게 지표가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하는 지를 이해한다.	중급/고급 단계 프로그램 인력은 본인들 업무와 관련된 지표를 설명할 수 있다. 중급/고급 단계 프로그램 인력은 본인들의 전략과 집행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표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사용해 왔는지(1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2.6 (선택)	예상되는 영향은 적절한 데이터를 위한 핵심 양적 지표를 위해 현실적으로 계획되었 다.	공통의 지표를 포함한, 양적 핵심 지표에 대한 예상이 있고, 이는 프로그램의 완료 또는 프로그램 완료 후 2년까지에 대한 것이다. 예상은 특정한 날짜까지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표 가치에서 변화로서 표현된다. 정보의 자원과 분명하게 서술된 추정과 함께, 예상은 문서화 된 연구, 분석, 분명한 계산에 의 해 뒷받침 되어 진다. 작년 예상이 최소한 한번 검토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3. 지표의 변화 측정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3.1 (필수)	핵심 지표에 대한 기준 정보가 수집 된 다.	문서화된 계획이 기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사용: 프로그램은 활동이 변화로 이어지기 전에 핵심 지표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기준 정보를 가지고 있다.	
3.2 (필수)	각각 지표에 대한 정보는 좋은 연구 관 행을 따르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 된 다.	문서화된 계획이 적절한 때에 각 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계획은 철두철미하고, 현실적이며 좋은 연구 관행을 따른다. 계획은 각 지표가 어떤 정보가 수집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정보가 수집될 것인지, 어떻게 각 지표가 합산 되고 설명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사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사용: 프로그램은 정보 수집이 설정된 좋은 관행에 순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연구 설계, 시기, 표본 추출, 질적 통제 등)	
3.3 (필수)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다른 성과를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다른 성과를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용: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다른 성과를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3.4 (선택)	프로그램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한다.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거나/모을 것인 문서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용: 프로그램은 의도하지 않은 중요한 효과가 발견 될 때, 프로그램 논리를 검토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4. 사업 활동이 원인이 된 변화 측정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4.1 (필수)	결과 체인에서 모든 핵심 지표의 원인이 된 변화는 확립된 좋은 관행에 순응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추정된다.	프로그램은 결과 체인에서 각각의 핵심 지표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에서 발견된 변화의 원인을 평가하고 추정하기 위한 문서화 된 계획이 있다.	
		결과 체인에 돌아오는 원인 연관성을 평가하고 추정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은 프로그램 문맥에 적절하고, 확립된 좋은 관행에 순응한다.	
		사용: 프로그램은 지표에서 원인이 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계획을 사용한다.	
		사용: 원인을 평가하고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과, 어떻게 그 방법이 확립된 좋은 관행에 순응하는지를 프로그램은 입증하고, 인력은 설명할 수 있다.	
		사용: 지표는 분명한 계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추정은 필요하다면 설명되어 진다.	

5. 시스템 또는 시장 내 확대된 변화 관측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5.1 (선택)	시스템적인 변화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프로그램은 시스템 변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문서화된 계획이 있다.	
		시스템적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은 프로그램의 예상 및 문맥에 적절하며, 원인을 고려하고, 좋은 연구 관행에 순응한다.	
		사용: 프로그램은 시스템적인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계획을 사용해 왔다.	
		사용: 시스템적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어떻게 그 방법이 확립된 좋은 관행을 따르는지를 프로그램은 입증할 수 있고, 인력은 설명할 수 있다.	
		사용: 수치는 분명한 계산으로부터 뒷받침 되고, 모든 추정은 설명되어 진다.	

6. 프로그램 비용 추정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6.1 (필수)	비용은 년마다 누계로 추적된다.	비용을 추적하고 국가에서 쓰이는 모든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연간 및 누계 합계액을 산출하기 위해 분명한 회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6.2 (선택)	비용은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성분을 통해 할당된다. (한 개 이상의 주요 개입과 함께 오직 프로그램에만 적용 가능함)	사용: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쓰인 모든 프로그램 관련 비용에 대한 연간 누계 총액을 가지고 있다. 회계 제도는 관리부가 영항이 측정되는 프로그램 각각의 주요 구성성분에 쓰인 비용의 총액을 추구하고 산출할 수 있게 해 준다. 사용: 프로그램은 영항이 측정되는 각각의 구성성분 비용의 연간 누계 건적을 가지고 있다.	

7. 결과 보고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7.1 (필수)	프로그램은 분명하고 적절하게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적어도 일 년에 한번 하게 한다.	프로그램은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공통 영항 지표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영향을 예측하는 문서화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영향을 예측하는 시스템은 분명하고, 철두철미하며 적절하다. 사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예측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뒷받침 하는 계산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같은 계산은 중복을 고려한다. (W/A)	
7.2 (필수)	프로그램은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최신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생성한다.	프로그램은 작년에 생성된 공통 영항 지표 (그리고/또는 기타 높은 수준의 공통 지표)를 위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영항의 분명한 예측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과정을 논의한다. 보고된 변화가 기타 공개적으로 편드 지원받은 프로그램과 민간의 기여 때문일 때, 변화는 보고서에서 언급된다. 시스템적인 변화의 성과는 보고된다.	
7.3 (필수)	시스템적인 변화의 성과는 보고된다.		
7.4 (선택)	성과는 게재된다.	섹션 7.1-7.3에서 언급된 성과와 비용에 관한 문서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8. 결과 측정 을 위한 시스템 관리

No.	통제 포인트	준수해야 할 조건	점수(10)
8.1 (필수)	프로그램은 관리 및 의사 결정에서 성과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사용하고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분명한 체계가 있다.	프로그램은 성과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정보가 관리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문서화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시스템은 현실적이고, 성과 정보가 규칙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의사 결정에 통합되는 것을 보장한다.	
8.2 (필수)	시스템은 충분한 인적, 재정 자원에 의해 뒷받침 된다.	사용: 관리자는 결과 체인에서 간격이 되는 예상이 어느 정도 까지 유효하게 제공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성과 측정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진 결정을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충분한 인적, 재정 자원이 이용가능하고, 성과 측정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할당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8.3 (필수)	시스템은 잘 관리 되고, 프로그램 관리에 통합된다.	인력은 성과 측정에서 그들의 업무와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다.	
		성과 측정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책임은 적절하고 문서화 되어 있다.	
		성과 측정 시스템의 증거는 제도화 되었으며, 예를 들어, 프로그램 관리 문서, 업무 설명, 인력 성과 검토, 정기적인 회의 등을 포함하는 형태이다.	
		모든 프로그램 인력은 성과 측정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문서화 된 지침서에 접근성을 가진다.	
		프로그램은 시스템적으로, 모든 성과 측정 활동과 시스템의 이웃과의 질적 수준을 확인한다.	

출처 : DCED (2015b)

연구자료 ODA연구 2017-07-104

선진 공여기관의 개도국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전략 연구

발 행 2017년 9월

발 행 인 최성호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031)740-0114

팩 스 031)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트프린팅

I S B N 978-89-6469-463-3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